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

調查經緯/399

社會背景/401

家族構造/409

方 言/420

說 話/429

信 仰/435

觀 光/450

民 具/459

海 女/467

調查經緯

吾照里 調査는 民俗博物館의 文化財研究會 소속 學生 및 指導教授가 참여해서 벌인 두 번째 調査이다.

本 吾照里는 龍水里와 같은 海村이면서도 龍水와는 對極的 位置에 있는 마을이어서 比較研究에 좋은 對象으로 판단되어 선정된 것이다. 이 調査는 1974年 7月 12日부터 15日 사이에 치러졌으며, 金榮敦(社會背景, 海女), 玄容駿(家族構造, 信仰), 姜根保(方言), 沈汝澤(說話), 徐庚林(觀光), 文基善(民具) 등 教授 여섯 분과 學生 9개 學科 23名이 參與하였다. 參與學生은 다음과 같다. (()안은 학과 및 학년)

社會背景 : 홍창표(行政 1)

家族構造 : 강영중(國文 3), 장원택(國文 2), 김종식(國敎 1)

方 言 : 양영길(國文 3), 고석희(國敎 1)

說 話 : 고상구(國文 3), 좌동열(國文 2)

信 仰 : 양혜순(家政 2), 안상근(國敎 1), 오용인(農化學 1)

觀 光 : 김영진(觀光 2), 홍길현(觀光 2), 박정선(觀光 2), 양은주(觀光 1)

民 具 : 한영자(美敎 2), 최은자(美敎 2), 조인득(美敎 2), 신경수(美敎 1)

海 女 : 이태리(英敎 4), 양순열(國文 3), 이종석(園藝 2), 김창모(增殖 1)

本 調査의 概要는 濟州新聞紙上에 8회에 걸쳐 발표하기도 했었다(1974. 8. 12~27).

本 報告書를 내는 데는 金成煥, 康日好씨의 勞苦가 컸으며, 吾照里 住民의 積極적 協助와 특히 박태보씨, 강인생씨, 오복춘씨의 도움이 컸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感謝의 뜻을 표한다.

社 會 背 景

目 次

- I. 自 然 環 境
- II. 史 的 背 景
- III. 人 文 概 況
- IV. 產 業 構 造

I. 自 然 環 境

吾照里는 해안선을 끼고 部落形成이 밀집하게 이루어진 자연부락으로 제주도의 典型的 漁村이다. 南濟州郡 城山面의 14個 行政里 中の 하나로 濟州市에서 43km, 西歸浦에서 43km, 隣接 마을인 북쪽의 始興에서 3km, 남쪽의 古城과 2.5km, 동쪽의 城山과 4.5km의 거리에 위치한다. 이밖에 隣接 마을로는 서쪽에 水山이 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城山浦口로 잇닿는 吾照浦에 直面해 있다.

이 마을에는 높은 산은 없으나 바닷가에 海拔 45m의 食山峰이 있다. 마을 일대에 용암지대가 분포되고, 하천이 없기 때문에 農土가 각박하고 논도 얼마 되지 않아 6.6ha 정도다. 경작지는 食山峰 서쪽 ‘안카름’ 일대의 밭과 마을 남쪽 낮은 지대에 논이 分布되어 있다. 수리시설로는 마을 중심에 있는 약 1,500평이 되는 못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축의 급수로도 이용되며 또 養魚場으로 활용되고 있다.

食山峰을 중심으로 한 앞바다는 바다로 길게 뻗어나간 城山里로 둘러싸

여 넓은 吾照浦를 이루는데, 養魚場으로 適地이며 8만평 넓이의 양어장이 조성되어 있다. 그런데 吾照浦는 城山港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吾照里 어선들이 出漁時에 城山港을 거쳐 드나들게 되므로 城山漁業前進基地 이용에 매우 편리하다.

食山峰에는 여러 樹種이 分布되어 있는데 그중에는 ‘왕대’(王竹)도 꽤 자란다. 또한 이 봉우리는 양어장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하며, 공원·식물원·휴양지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마을을 통과하는 우회도로는 굴곡이 심한 편이나 폭 4m 정도로 3,100m가 모두 포장되어 있다. 간선도로는 마차 한대가 다닐 정도이다. 마을 모두가 울타리를 둘로 높직이 쌓았으며 동백나무·구름비나무·팽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 방풍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문은 거의 없는 대신 ‘정낭’이 꽤 남겨져 있다.

氣候는 평균기온이 15.2℃로서, 제주시 14.7℃, 서귀포 15.9℃의 중간 정도이다. 降水量은 2,132.4mm로 제주시 1,714mm보다 훨씬 많고, 서귀포 2,216mm보다는 조금 적다. 風速은 평균초속 3.7m이며 여름에 남동풍이 불며 태풍이 불면 매우 심한 피해를 입는다. 겨울에는 북풍 내지는 북서풍이 분다. (중앙관상대 출판: 1972년도 ‘기상연보’)

Ⅱ. 史 的 背 景

吾照里의 歷史는 참고문헌을 발견할 수 없어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壬辰倭亂 이전에 恩津宋氏가 設村하였다고 전해진다. 口碑傳承에 의해 作成된 里沿革을 살펴 보면, 1592年 壬辰倭亂을 前後하여 倭敵들이 위치상 倭와 가까운 이곳 해상에 출몰하므로 俗稱 ‘안카름’에 義勇兵士들이 陣을 치고 助防將이 중심이 되어 이들과 대항했다. 一說에 助防將이 食山峰을 ‘느람지’(비가 스며들지 않게 난가리 위를 덮는 이엉)로 덮어 봉우리 전체를 軍糧으로 가장시켜 놓았는데 왜놈들이 정말 군량미로 착각하여 對敵할 용기를 잃고 도주한 일이 여러번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食山峰이라는 名稱이 유래한 것이라 한다.

따라서 ‘안카름골’의 設村年代는 400年 이전으로 추측할 수 있다. ‘안카름골’은 吾照里가 맨 처음 設村한 곳으로 현재의 吾照里는 壬亂이 종결되고 ‘안카름’에 설치됐던 陣이 古城·水山·城邑으로 옮겨짐에 따라 마

을 중심이 '안카름'에서 '새카름'으로 옮겨져 형성됐다.

'안카름골'에는 기와 파편·그릇 조각들이 散在해 있고 '진모살' 주변의 모래를 파헤칠 때 가끔 시체가 발견된다고 하는데 '불미술'·'절터'·'상터왓'·'연두' 및 '마재포'라는 지경 명칭과 더불어 設村 당시의 흔적을 더듬어 볼 수 있겠다. 이곳에 도요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명사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기와 조각 등으로 미루어 보아 기와집이 있었던 것 같고 따라서 設村年代를 李朝中葉 이전으로 올려 볼 수 있을 것 같다. 기와 조각의 분포만큼 부락이 형성됐을 것이며 陣設置 당시에 풍요한 생활을 누렸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한 '진모살' 주변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군사행적 등을 더듬어 볼 수 있다.

口傳에 의하면 高麗時代 蒙古治下 때 食山峰 일대가 日本 침략을 위한 軍艦製作基地 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軍艦을 제작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傳承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

吾照里 남쪽 5km에 위치한 溫平리에 三姓神話에 나오는 '화성계' (또는 '황루알')가 있고, 婚姻池 傳說과 더불어 신석기시대의 돌도끼·無文厚肉土器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지리적으로 近接한 吾照里 '안카름골'의 역사도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類推에 불과하며 앞으로의 연구과제인 것이다.

여러가지 傳說이 얹혀 있고 이 마을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食山峰은 1925年 頃까지는 數筆로 나뉘어 個人所有로 됐던 것을 洞民들이 畝田을 삼아 모은 돈으로 마을 共同財産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마을의 協同精神을 살펴볼 수 있는 一例라 하겠다.

Ⅲ. 人 文 概 況

吾照里는 11個洞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18個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洞名은 '백문동네'·'새카름골'·'안카름골'·'생이집골'·'짐수막'·'새통'·'소금막'·'공팔동네'·'억물'·'판이왓'·'논골' 등이다.

人口는 250家口에 男子 579 名, 女子 675 名으로 總 1,254名이다. (1973年 12월 일 현재) 가구당 평균인구는 5.02名인데 이는 전도 평균 4.6名보다 훨씬 많고 같은 어촌인 龍水 4.8名보다도 많은가 하면, 가까운 牛島

濟州島部落誌(Ⅲ)

의 5.1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민의 性比는 女 100명에 男 85.8명으로 道平均 性比 男 91.5명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학생수는 345명으로 주민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吾照里內에 學校는 없으나, 國民學生은 東南國民學校에, 中高生은 城山中學校와 城山水產高等學校에 대부분 취학하고 있다. 학생 현황은 <表1>과 같다.

<表1>

學 生 現 況

吾 照 里

學 校	國民學校	中 學 校	高等學校	專門學校	大 學 校	計
學 生 數	203	88	40	6	8	345

1973年 12月 31日 現在

주택현황은 75棟이 改良되고 나머지 438棟은 草家다. 가구당 주택보유는 2.05棟이다.

다음 주민의 構成을 姓氏別 家口數로 보면 <表2>와 같다. 이 表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 마을은 同族部落의 性格을 띠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表2>

姓 別 家 口 構 成 比

吾 照 里

姓	康	吳	高	洪	金	宋	朴	玄	夫	蔡	韓	李	方	其他	總 計
家口數	73	36	25	24	18	18	16	15	9	5	3	3	2	3	250
構成比	29.2	14.4	10.0	9.6	7.2	7.2	6.4	6	3.6	2	1.2	1.2	0.8	1.2	100%

1973年 12月 31日 現在

通婚圈은 약 50% 정도가 里內婚을 하며 里外婚域으로는 城山·古城·新陽·水山 등지다. 그러나 北濟州郡 終達里와는 結婚을 꺼리는데, 그 이유는 그곳의 生活風習의 差異와 生活力이 약한 점을 들고 있는데 風水地

理說의 영향도 많이 받고 있는 듯하다.

里民의 海外進出 狀況을 보면 在日僑胞가 18家口 있는데 대부분 大阪에 몰리고 있다. 在日僑胞數는 城山面에서 가장 많은 편인데 吾照里 發展에 많은 협조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四·三事件의 피해는 漢拏山과 遠距離에 있는 관계로 크지 않았으니 간접적으로 人命 20여명이 학살되고 家屋 4戶가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뿐이다.

마을의 公式的 機構로서는 里事務所와 開發委員會 및 改稱된 里運營會가 있으며 漁村契 및 城山單位農協 吾照支所가 있다. 또한 婦人들 모두가 참여하여 이루어진 婦人會, 農協에서 조직된 婦女會, 국민학교 아동들의 어머니로 구성된 어머니회가 있으며 4H구락부는 해체되어 지금은 없고 4F구락부가 漁村의 生活改善과 어업활동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산업시설로는 精米所가 두군데 있다. 연자매가 다섯군데 있었는데 현재는 다 헐렸다. 그리고 마을의 남쪽 일주도로변에 工業地帶가 형성되고 있는데 火力發電所, 注油所, 煉炭工場, 濟州測候所城山分室이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公共利用施設로는 會館 1棟(18평), 共同倉庫 1棟(30평), 대지 200평이 있고 里事務所에는 行政電話가 설치되어 있어 里民들의 편의를 보아 주고 있으며 有線放送이 갖춰져 연락에 신속을 기하고 里民 動員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里事務所에는 TV가 설치되어 있는데 里民들이 모여 앉아 시청할 수 있도록 하여 里民의 소양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里內에는 病院과 藥局이 없으며 理髮館도 없어 東南(古城)까지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市場은 古城場(東南五日場: 4·9日場)을 주로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城山·細花·表善場도 往來하는데 비교적 널따란 交易圈을 형성한다. 부락내에 6개의 상점이 있어 日常用品을 구입하고 있다.

交通은 一周道路와 접해 있는 관계로 매우 편리한 편인데 버스로 제주시까지 1시간 30분, 서귀까지 1시간 40분이 소요된다. 그리고 바다에 直面해 있기 때문에 해상교통도 편리하나 海上交易은 거의 없고 조업 나갔다가 牛島에 들르는 정도이다. 牛島民들도 일년에 몇차례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해 들르기도 한다.

電氣施設은 1967년에 韓電融資 200만원, 在日僑胞 支援 150만원, 자체 부담 150만원 등 500만원으로 화력발전소로부터 직접 끌어들여 250가구중

188가구(75%)가 전기혜택을 받고 있다. 그리고 水道施設은 1970년도에 이뤄졌는데, 本線의 設置經費는 郡에서 부담하고 支線設置經費는 가구당 11,000원씩 부담하여 두산봉 水源池로부터 물을 끌어들여 全 里民이 上水道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이전에는 우물과 봉천수를 이용했었는데 그 흔적이 지금도 다섯군데나 있다. 文化施設로는 라디오가 가구당 0.75대 정도이고 TV는 20대가 있다.

<表 3>

文 化 施 設

吾 照 里

구 분	라디오	T V	신 문	전 화	전 축	가로등	재봉틀
몇 수	189	20	34	5	13	24	40

1973年 12月 31日 現在

우체통이 한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매일 다니는 집배원을 통해 편지·신문 등을 받아 보고 있다.

宗教機構로는 佛教·天主教·長老教·王國會館(여호와의 증인)·安息教 등이 있다. 절은 法華宗系の 奉願寺가 있으며 佛教信徒가 가장 많다.

Ⅳ. 產 業 構 造

海岸線이 약 2km나 되는 吾照里는 그 漁場이 牛島와의 사이에 위치하여 조업조건이 매우 좋으며 약 8만평이 넘는 養魚場이 造成되어 있다. 제주도 대부분의 漁村民들은 農業을 겸하고 있는데, 이 점은 吾照里에서도 마

<表 4>

職 業 * 狀 況

吾 照 里

구분	농업	반농 반어	반농 반상	추산	일반 공무원	교육 공무원	회사 원	목공 원	철공 업	정미	학생	미취학	계
수	409	279	15	7	7	6	9	4	6	9	345	158	1,254
구성비	32.6	22.2	1.2	0.6	0.6	0.5	0.7	0.3	0.5	0.7	27.5	12.6	100%

1973年 12月 31日 現在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

찬가지다. 그리고 어민들 이외에는 회사원과 공무원들이 약간 있다.

吾照里는 총 면적이 619.5ha이다. 그중 耕地面積은 248.9ha로 총면적의 40.2%이며 非耕地面積은 370.6ha로 총면적의 59.8%이다. 토지이용현황은 <表 5>와 같다.

<表 5>

土 地 利 用 現 況

吾 照 里

구 분	경 지 면 적			비 경 지 면 적				총 계
	밭	논	계	대 지	임 야	기 타	계	
면 적(ha)	242.3	6.6	248.9	12.6	245.2	112.8	370.6	619.5
구성비(%)	39.1	1.1	40.2	2.2	39.4	18.2	59.8	100

1973年 12月 31日 現在

그런데 耕作地 規模別現況을 보면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이 0.98ha로 全道 平均 0.85ha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表 6>과 같다.

<表 6>

耕 作 地 規 模 別 現 況

吾 照 里

구 분	0.3ha미만	0.3~0.5	0.5~1	1~2	2~3	3ha이상	호당평균
면 적(ha)	5.2	14.2	71.2	98	4.2	17.1	0.98
가 구 수	20	46	86	65	2	1	

1973年 12月 31日 現在

가축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表 7>

家 畜 保 有 狀 況

吾 照 里

구 분	소	돼 지	개	닭	말	오 리	토 끼	계
頭 數	148	191	81	59	55	102	10	646
戶當平均保有數	0.59	0.76	0.32	0.24	0.22	0.41	0.04	2.58

1973年 12月 31日 現在

濟州島部落誌(Ⅲ)

主要農産物은 보리·조·콩·고구마 등이며 '감귤도 재배하기 시작하고 있다. (18.2ha) 그리고 동력경운기·제초기·동력탈곡기·농약살포기가 있어 농업수단이 점차 현대화되고 있다.

<表 8>

農 機 具 現 況

吾 照 里

구 분	동 력 경운기	제초기	인 력 분무기	동 력 분무기	탈곡기	제송기	절간기	원동기	계
댓수	4	1	27	1	6	5	49	8	101

1973年 12月 31日 現在

漁業現況은 다음과 같다. 漁民數는 男子 32名, 女子 247名, 計 279名이며, 漁船은 11척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감태와 둥복을 채취하는데 이용하는 '터우'가 5척 있다. 漁船은 動力船이 5척(36톤), 無動力船이 6척(6톤)이다.

漁獲物은 魚類로는 옥돔·멸치·조기·고등어 등으로 타지역과 별차이가 없고 貝類로는 성게·해삼·소라·전복 등이며 海藻類로는 미역·감태·우뚝가사리·툇 등이다.

1968년에 조성된 8만평 넓이의 養魚場에는 숭어·뱀장어 등이 養殖되고 있으나 기술적인 양식방법이 모자란 형편이다. 조업지역으로는 제1종 공동어장 1,639,150㎡를 소유하고 있다.

牛島를 中心으로 한 이 第一種 共同漁場에서의 漁撈作業은 썩 편리한가 하면 漁船의 출항이 성산어업전진기지를 통해 드나든다는 점 등 조업조건이 아주 양호하다. 그러나 海女들은 가까운 해역 연안에 海産物이 많지 않아 거의 '뱃물질'을 나가고 있다. 이들의 採取物은 소라·전복·해삼·성게 등이며 미역·우무·툇도 채취되고 있다. 海女들은 경상도와 珍島 等地로 出稼했었으며 해방전에는 日本 對馬島로 많이 出稼했었다고 하나 지금은 거의 出稼하지 않는다. 이는 도내 다른 漁村과 비슷한 양상이라 할 것이다.

1962년에 設立된 漁村契는 현재 道內 91個 漁村契中 自立漁村契로 육성되고 있는데 구성원은 男子 32名, 女子 167名, 總 199名으로 어로종사자의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1974년부터 이 漁村契는 養魚場 運營, 海岸道路鋪裝事業, 바지락양식장(줄미역)을 運營하고 있으며 海産物 共同販賣 計劃을 세워 100만원의 自體資金을 目標로 前年까지 마련된 90만원을 합해 신용업무 개설도 계획 중이다.

家 族 構 造

目 次	
I. 調査目的 및 方法	IV. 妻妾의 家族
II. 家族의 構成	V. 養 子
III. 家族의 類型	VI. 家屋構造

I. 調査目的 및 方法

本 城山面 吾照里는 그 設村年代가 壬辰亂 以前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것은 '안카름'의 경우이고, 現在의 吾照里가 形成하게 된 것은 그 以後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번 調査對象地域으로 擇한 '새카름'이 '안카름'에서 옮겨 와서 제일 처음 자리잡은 곳이라는 점, 또한 그 家屋이 거의 原形 그대로 있으며 住民들의 말에 依하면 그 집들이 100餘年밖에 아니 되었다고 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서이다. 그래서 本 調査는 그 對象地域을 '새가름'의 1·2·3반으로 정하였다. 여기는 家屋構造가 原形 그대로 남아 있는 지역이며 그 家屋數가 33棟으로서 조사대상으로 적당하리라 생각되었다.

調査方法은 調査班員 3人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직접 戶別調査를 하였다.

Ⅱ. 家族의 構成

調査地域의 家戶數는 33戶이며, 實居住人은 187名, 家戶當 平均 家族數는 5.36名이었다. 또 셋방살이하는 家族을 따로한 世帶數는 다음의 <表 2>에 보이는 바와 같고, 班別 家戶數와 家族數는 <表 1>과 같다.

<表 1>

班別 家戶數와 家族數

吾 照 里

區分	家 戶 當 家 族 數										家戶數	家族數	가호당 가족수	합 계			
														총 가족수	평 균 가족수		
1 반	1	3	9	3	3	8	6	1	4.5	9	4	4	12	60	5.0		
2 반	7	2	2	9	8.5	4	10	9	5	5	—	—	10	66	6.6	187	5.36
3 반	6	7	5	5	2	8	2	7	6	4.2	7	—	11	61	5.56		

※ 4.5식 表記는 2世帶의 家族數인

1974年 7月 12日 現在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家戶當 平均家族數는 5.36人으로 濟州道 全體의 統計値보다 조금 많으나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다음으로 世帶當 家族數를 보면 다음의 <表 2>와 같다. 그런데 家戶數에 比하여 世帶數는 셋이 많다. 그것은 1家戶 안에 共住 家戶가 <表 1>

<表 2>

家 族 의 크 기

吾 照 里

區 分	一 班		二 班		三 班		計		
	世帶數	人員數	世帶數	人員數	世帶數	人員數	世帶數	%	人員數
1 人家族	2	2	—	—	—	—	2*	5.56	2
2 "	—	—	2	4	3	6	5	13.89	10
3 "	3	9	—	—	—	—	3	8.33	9
4 "	3	12	1	4	1	4	5	13.89	20
5 "	1	5	3	15	2	10	6	16.67	30
6 "	1	6	—	—	2	12	3	8.33	18
7 "	—	—	1	7	3	21	4	11.11	28
8 "	1	8	1	8	1	8	3	8.33	24
9 "	2	18	2	18	—	—	4	11.11	36
10 "	—	—	1	10	—	—	1	2.78	10
計	13	60	11	66	12	61	36	100	187

※ 世帶當 平均 人員數: 5.18人

1974年 7月 12日 現在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家戶가 있기 때문이다. 家族의 크기를 統計해 보면 <表2>와 같이 나타난다. 5人家族이 6世帶로 가장 많아서 16.6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2人家族, 4人家族의 順으로 되어 있어 그 분포가 5人家族을 中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家戶當 平均家族數가 5.36人을 獲得하여 준다.

그리고 이들 家族의 世代別 構成을 보면 <表3>과 같다.

<表3>

世 代 別 家 族 構 成

吾 照 里

區 分	世 帶			數	
	一 班	二 班	三 班	計	%
1 世代家族	1	2	—	3	8.33
2 "	9	7	10	26	72.22
3 "	3	2	2	7	19.44
計	13	11	12	36	100

1974年 7月 12日 現在

보는 바와 같이 1世代家族과 2世代家族을 합하면 80%가 넘는다. 이것은 夫婦 또는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로 構成된 核家族(單一家族)이 거의 大部分임을 보이는 자료이다. 3世代家族은 直系家族이다. 이 直系家族에는 3世代 以上 4世代家族도 포함되는데 이 吾照里에는 4世代家族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直系家族이 많으면 많을수록 平均 家族數가 많아진다. 그런데 이 吾照里의 경우 直系家族이 적으면서도 平均家族數가 많은 것은 2世代家族에도 그 子女의 數가 많은 까닭이다. 이곳 住民들은 初婚年令이 대체로 늦다. 그러나 늦게까지 子女를 낳고 있음을 실지 조사자료가 보여 주고 있다. 初婚年令이 대체로 늦다는 것은 30代 以上の 世代에 해당하는 것이며 20代의 婚姻者들은 우리나라 他地域에 비하여 별로 差異가 없다.

또 實住居者의 性比를 보면 <表4>와 같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地域內의 男女性比는 86으로서 女子가 약간 많다. 吾照里의 全體的 統計는 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현상은 濟州道 全體로 보아서도 역시 男子의 數보다 女子의 數가 많은 것과 別差가 있는 것은 아니다.

<表 4>

性比 및 年令別 分布'

吾 照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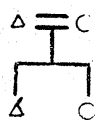
年 令	男	女	性 比	計	年令別 分布 (%)
1~10歲	21	32	65.62	53	28.34
11~20	24	27	88.89	51	27.27
21~30	12	7	171.47	19	10.16
31~40	14	9	155.56	23	12.3
41~50	7	8	87.5	15	8.03
51~60	3	5	60.0	8	4.27
61以上	5	13	38.46	18	9.62
計	86	101	86.0	187	100.0

다음 이곳 住民들의 婚姻關係를 보면 대개 里內, 혹은 里外와 이루어지고 있다. 里外地域은 始興里·城山里·古城里·水山里·新陽里 등으로 周邊部落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혼인맺기를 꺼려하는 마을도 있으니 그 理由는 다음과 같이 說明되고 있다. 그 예로서 兎山과 같은 지역에는 兎山神이 있어 거기의 신부를 데려오면 그 神이 붙어 와서 결혼 후에도 괴롭힌다고 한다. 그래서 特히 表善面 쪽의 村落과는 사돈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위에 든 村落들 가운데에도 始興里는 조금은 꺼려하고 있다. 그중 終達里를 더 꺼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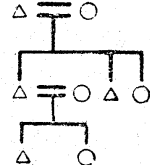
Ⅲ. 家族의 類型

吾照里의 家族類型을 살피기 전에 편의상 家族類型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I 型



Ⅱ -a型



Ⅱ -b型



Ⅲ 型

其他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

I 型은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로 構成된 家族이며 한 울타리 안에서 生産・消費生活을 共同으로 하는 單一家族이며 核家族이다. 이 型에는 完型의 家族과 父缺의 家族, 夫婦만의 家族, 夫만의 家族까지도 포함시킨다.

II 型の 家族은 三世代로 이루어진 直系家族이다. 이 中에서 II-a型은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 그리고 그의 既婚子, 子婦, 孫子女로 이루어진 가족이다. 이 型の 家族도 한 울타리 안에서 居住하며 經濟生活을 共同으로 한다. 이 型에는 孫子女를 ego로 해서 祖父缺, 祖父母缺, 父缺의 家族 등을 포함시킨다. 이 型的 家族은 濟州本島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牛島에 몇 家口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그런데 吾照里의 경우에도 한 家口가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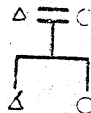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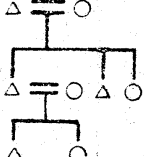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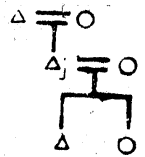
II-b型的 家族은 아들 夫婦와 그의 未婚子女, 그리고 그의 父母로써 이루어진 家族이다. 이 型에는 孫子女를 ego로 해서 祖父缺, 祖父와 母缺, 父缺, 祖父와 父母缺의 家族까지도 포함시킨다.

이러한 分類에 따라 그 類型別 實態를 보면 <表 5>와 같다.

<表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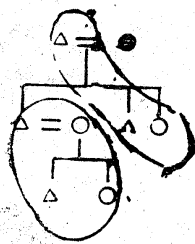
家 族 類 型

吾 照 里

I 型	II-a型	II-b型	III型
			其 他
完型: 18(50%) 父缺: 6(16.67%) 夫婦만: 3(8.33%) 夫만: 1(2.78%)	祖母缺: 1(2.78%)	完型: 2(5.56%) 父缺: 1(2.78%) 祖父・父母缺: 1(2.78%) 祖父・母缺: 1(2.78%)	2 (5.56%)
計: 28(77.78%)	計: 1(2.78%)	計: 5(13.89)	2 (5.56%)

I 型은 全體 家族의 77.78%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곳 家族의 基本類型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 核家族은 濟州島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로 現象인

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子女들이 婚姻을 하게 되면 父母의 슬하를 벗어나 分家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現象은 本島에 거의 一般的인 것은 특히 現代敎育을 받은 영향이 크다 하겠다. 그런데 核家族이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平均 家族數가 많은 것은 그들의 未婚子女의 數가 他地域에 비하여 많기 때문이다.



<圖 1>

그런데 Ⅱ-a型의 家族은 1家口뿐이었다. 이 家族은 孫子女를 ego로 해서 祖母가 缺한 家族인데 그들의 食生活은 <圖 1>과 같이 分離되어 있다. 그들은 食生活만 區分할 뿐 그밖의 모든 生活은 共同으로 營爲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類型의 家族은 牛島에 몇 있으나 完型의 家族은 2 뿐이다. 이 類型의 家族은 長男이 結婚하여 子女를 가지게 되면 대개 한 울타리일 경우라도 ‘안꺼리’에는 父母와 그의 未婚子女 ‘박꺼리’에는 長男과 그의 家族이 居住하는 것이 보통이다. 혹은 그 반대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의 未婚子女의 나이가 아직 어렸을 때에는 하나의 家族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常例다.

<表 6>

家 族 類 型 比 較

吾 照 里

	I 型	Ⅱ-a型	Ⅱ-b型	Ⅲ型
類 型				型 他
一 班	10 (76.92%)	0	2 (15.39%)	1 (7.69%)
		2 (15.39%)		
二 班	9 (81.81%)	0	2 (18.19%)	0
		2 (18.19%)		
三 班	9 (75.01%)	1 (8.33%)	1 (8.33%)	1 (8.33%)
		2 (16.66%)		
計	28(77.78%)	1 (2.78%)	5 (13.89%)	2 (5.56%)
		6 (16.67%)		

Ⅱ-b型의 家族은 5世帶가 있다. 完型의 家族은 2世帶뿐이다. 그런데 特異한 것은 祖父와 父母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即 <圖 2>와 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Ⅱ-b型의 家族은 全體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直系家族의 類型이 나타나게 된 것은 子女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대개 相續者인 장남만을 남겨두고 分家하여 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 長男 夫婦는 父母를 모시고 同居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家族類型을 班別로 比較를 해보면 <表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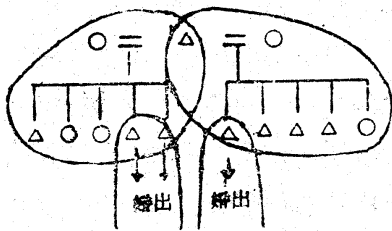


<圖 2>

앞의 表에서 보면 이미 말했듯이 I型 즉 核家族이 3/4을 차지하고 있고 直系家族은 1/4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濟州島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이다.

IV. 妻·妾의 家族

吾照里에서는 再婚을 대체로 하지 않으며 妾을 거느리는 일도 거의 없다. 그런데 妻·妾을 거느린 예가 하나 보인다.



이는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3男 2女를 두고 둘째 부인과의 사이에 4男 1女를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은 두 부인의 집을 왕래한다. 두 부인은 각각 다른 집을 마련하고 있다.

이 예는 첫째 부인과의 사이에 子女를 두고 있으면서 둘째 부인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娶妾의 目的이 得男을 위한 것이 아니다. (과거에는 得男을 위하여 娶妾을 많이 했었음)

調査에 依하면 이 娶妾은 得男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남편)이 獨子로 자라나서 兄弟가 없어 외롭게 컸던 까닭이라 한다. 그리고 그(남편)는 친구를 좋아할 뿐 아니라 子女의 친구까지도 잘 보살피 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신도 一夫一妻制가 좋은 制度라고 말하고 있다. 그 좋은 制度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앞에서 一夫多妻가 거의 없음을 말했고 再婚도 대개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再婚의 例도 몇 보이기도 하나 그것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一方(대개는 남편)이 죽었을 때이다. 이 경우 여자의 初婚年令이 17~19歲인데 再婚年令은 대개 21.22歲이다. 그런데 남자가 再婚하는 것은 크게 문제삼고 있지 않다. 그것은 대개 得男을 위한 것이거나 婦人이 不順한 경우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이유는 男尊女卑의 思想이 아직도 남아 있는 까닭이다. 또 女子가 再婚을 하면 아주 좋지 않게 보고 있다. 女子들은 오직 한 남편만을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 즉 烈女를 崇仰하는 觀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例가 里內에도 있으며 어떠한 할머니는 이에 절대 지지하고 있는 예도 보았다.

V. 養 子

우리 나라의 養子制는 아들이 없을 경우 父系의 近親 中에서 아들과 同行(동행)의 親族을 養子로 데려 와서 財産과 祭祀를 相續하고 家系를 잇는 것이 거의 一般的인 것이 되고 있다.

吾里 內에서는 養子를 데린 例가 거의 없고 한 두 例가 있을 뿐이다.

한 例를 보면 아들 둘을 가진 아우가 兄에게 딸아들을 養子로 주고 있다. 그런데 次男은 軍에 갔다 죽고 딸아 後가 없이 되고 말았다. 養子로 데려 가는 時期는 양측 父母들이 의논하여 대개 3~6歲 때에 行한다. 養子로 데려 오면 그 養子는 養父母의 戶籍에 入籍되고 養父母는 親 아들처럼 생각하고 養子도 親父母로 생각한다. 養子는 養父母들에 依해 養育된다. 위의 例와 같이 親父母의 家系를 이을 사람이 없어도 養家에 그대로 머물면서 가끔 돌아보며 때로는 아들(養子로 간 사람의 아들, 대개 둘째 아들 이하이다)을 親家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보내는 것이 아니고 後에 돌아 온다는 것이다.

VI. 家 屋 構 造

마지막으로 家屋構造에 대해 調査한 바를 報告하기로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地域이 現 吾里 中에서도 맨 처음 자리잡은 곳이어서 오래 된 家屋構造를 볼 수 있었다. 近來에 지은 집을 제외하고 나면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

四間집 1채, 나머지는 모두 三間집이었다.

그런데 濟州島의 대개의 坐向이 東向과 南向이 많은 것과 같이 吾照里에도 역시 東·南向 집이 많다. 北向 집이 한채도 없는 것이 그 特色이기도 했다.

또 西向집도 한채 뿐이다. 東向집이 많은 것은 떠오르는 아침햇살을 받아 좋은 것이며 南向집이 많은 것은 집안에 햇볕이 많이 들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家屋의 坐向을 統計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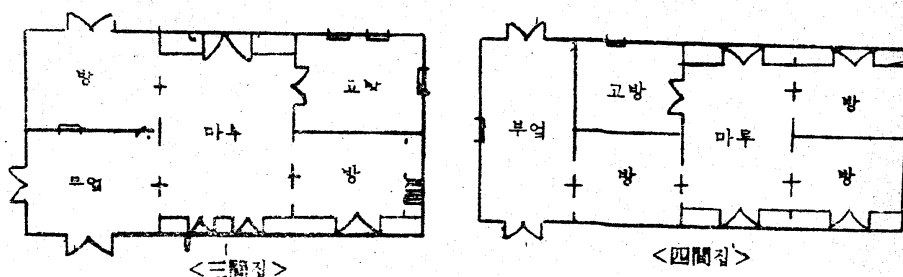
<表 7>

家 屋 의 坐 向

吾 照 里

坐 向	東	西	南	南東	計
家 屋 數	17	1	13	2	33
%	51.52	3.03	39.39	6.06	100

家屋을 形態上으로 보면 모두가 一字型으로 지어져 있는데 近來에 지은 한 채만이 ㄱ字型으로 지어져 있다. 家屋의 構造는 <圖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三間집과 四間집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圖示의 構造는 一般型이어서 三間집에서도 부엌이 뜰채에 있는 집도 상당수가 있다. 그리고 변소는 대부분이 부엌과 먼 반대편에 있는 집이 대다수였다. 四間집에는 부엌이 대개 左側 한 間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圖 3>

지붕은 대다수가 초가이며 지붕개량한 몇몇 스테이트집과 近來에 지은 집은 대개 스테이트집이다. 이밖에 함석집이 한채 있었다.

<表 8>

지 붕 의 種 類

吾 照 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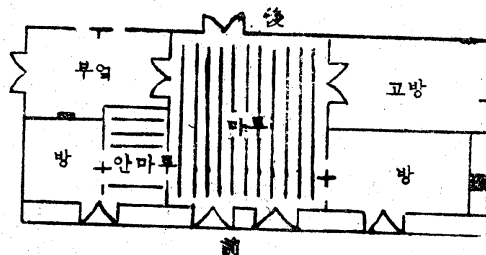
區 分	초 가	스레트	합 석	計
家 屋 數	21	11	1	33
%	63.33	33.33	3.34	100

※ 「안거리」를 대상으로 함

울타리는 각각 다르겠지만 대개 長方形이며 그 안에 살림을 營爲하는 안거리와 農機具와 海產物採取道具 等を 넣어 두는 ‘헛간’(창고)을 대개 각지고 있다. 이 ‘헛간’은 보통 ‘쉐막’(마굿간)과 같이 있다. ‘안거리’의 경우 三間집은 17~19坪까지 있으며 四間집은 약 20坪 内外의 建坪을 가지고 있다. 吾照里의 경우 ‘박꺼리’가 四間인 경우는 없었다. 마당은 대개가 家屋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농번기에는 生活空間으로서 큰 몫을 차지한다. 이 마당은 집의 ‘울레, 도’(入口)에 들어서면 훤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대개 박꺼리로 가리워져 있어 그 옆을 돌아야만 안거리와 함께 들여다 보이게끔 되어 있다. 이곳 家屋의 垆地는 대개 120~130坪이다.

그런데 二班을 調査하는 가운데 特異한 形態의 집이 있어 소개한다. 이 집은 오○규氏 집인데 本來는 三間집이다. 다른 집과 特異한 것은 <圖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마루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典型的인 濟州의 三間집은 부엌이 앞에 있는데 이 집에는 뒷쪽에 있는 것이 또 하나의 特異한 점이다. 안마루는 그 용도가 매우 많다. 때로는 食事も 하고 量이 많지 않은 農作物을 임시 넣어 두기도 한다. 보통 마루에 넣어 두는 것을 量이 적으므로 이곳에 넣어 두는 것이다. 이 家屋의 建坪은 四間집의 크기와 맞먹는 약 20坪이나 된다. 이 家屋은 현재 살고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약 60여년 전에 改造하였다고 한다. 이 안마루는 이 때에 改造하면서 만든 것이다.



<圖 4>

民家의 類型을 보면 <表 9>와 같다. A型은 대체로 核家族이 居住하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

는 것이고 C型은 過去 그 先祖의 지체가 높았던 집안들이다.

<表9>

民 家 의 類 型

吾 照 里

구 분	A	B	C	D	計
類 型	ㄱ	ㄱ ㄴ	ㄱ ㄴ	ㄱ ㄷ	
家屋數	5	3	5	20	33
%	15.15	9.09	15.15	60.61	100

ㄱ : 안꺼리

ㄴ : 박꺼리

ㄷ : 목꺼리

方 言

目	次
1. 地 名	5. 飲 食 名
2. 說話에 依한 地名	6. 衣 服 名
3. 風 名	7. 遊 戲 名
4. 潮 水 名	8. 地域的 特殊方言

1. 地 名

- ① 실곶 : 옛날 ‘안카름’에 관청·절·집 등을 지을 때, 나무를 베었던 場所라고 하며, ‘곶’이란 나무나 덩불이 우거진 데를 말한다.
- ② 정또왓 : 일명 ‘짐사니왓’이라고 하며 家畜을 防備하기 위하여 정을 놓았던 곳이다.
- ③ 당남밭 : 停幢이라고도 하며 軍隊가 머물렀던 곳이다.
- ④ 부묘술 : 夫씨의 墓가 있다 해서 명명되었으며 ‘술’이란 경사진 밭을 意味한다.
- ⑤ 도새기톨래 : 돼지 形態와 비슷한 밭이고 ‘톨래’는 보통 작은 밭을 말한다.
- ⑥ 올래왓 : ‘올래’라던 마을 안에 있는 골목인데 ‘안카름’이 形成되었을 때 골목길이었던 곳이 지금은 밭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 ⑦ 절터 : 절간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몇개의 추춧돌만이 남아 있다.

- ⑧ 중귀미돌래 : 절터 바로 옆에 있는 밭이고 倭亂이 일어났을 때 중들이 절에서 使用하는 貴重한 物件들을 묻었던 場所라 한다.
- ⑨ 모살왓 : 모래가 많은 밭이며, '식산봉'을 끼고 양쪽에 자리잡고 있다.
- ⑩ 연두밧 : 옛날 倭賊들이 침략할 때 烽火臺로 使用하던 곳이다.
- ⑪ 창터 : 곡식을 저장했다가 住民들에게 공급해 주는 창고가 있었던 곳이다.
- ⑫ 호작밧 : 밭 一部를 팔기 위하여 잘라낸 밭을 이른다.
- ⑬ 대선밧/계시왓 : '식산봉' 동쪽에 있으며 佛教에서 행하던 燃燈會・八關會 등을 열던 곳이라고 한다.
- ⑭ 시남밧 : 몇달전에 磁器와 葉錢이 發見되었던 밭이다.
- ⑮ 죽지 : 海邊에 位置한 작은 늪지대로 倭亂이 일어났을 때 避身場所로 쓰였고, '렛일당'을 치렀다는 傳說이 있다.
- ⑯ 쌍월터 : 산터에 좋다고 하는 傳說이 있는 地域이며 不耕地이다.
- ⑰ 지왓골 : 옛날 큰 廳舍가 있었던 곳으로 倭亂이 일어났을 때 불태워졌으며, 現在는 기와 조각들만 너절하게 널려 있으므로 해서 불려지는 이름이다.
- ⑱ 애기자국 : '빌레'에 아기 밭자국이 패어져 있다는 곳이다.
(※ 빌레 :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을 가리킨다.)
- ⑲ 빈독남묵 : '빈독' 나무가 있던 곳이다. 이 나무는 잎이 감나무와 비슷하고, 열매는 까맣게 익으면 옛같이 맛있으며 씨가 작은 나무다.
- ⑳ 잣동산 : 이 마을에서 祭를 지냈던 곳이다.
- 其他 地名을 다음에 列舉해 보기로 한다.

문기왓	한지왓
코지왓	제공왓
큰굴왓	송태왓
판이왓	평벌씨왓
아외남밧	오름밧
고장난밧	아진밧
객주리돌래	장귀돌래
소녕니돌래	섬비술
선태기술	떡남술

濟州島部落誌(Ⅲ)

백술	진머를
오로삿	너꺼머름
수리덕	바습
진틀묵	신곳
당징묵	우치등얼
연뒤밋	머새
싱곳	상을
관세터	쌍월지경
물래	바오름
돈두뒤동산	뒷동산
개왓동산	진동산
잔못	진귀니물
쇠기물	장아물
옹쟁이물	막실통
너븐여(/큰마당)	큰여
좁은여	숫발여
가린여	불락여
고분여	진여
한여	음시여
족은여	새여
박새여	따비갈여
다끈여	개월존여
술날리는코지	궁쟁이보코지
한독코지	비아기코지
산여코지	구쟁이모돌코지
유지난방오지	당머리
난당머리	개머리
장시머들가	물양장
고본지미	조근물미
옹여지미	납대기
백기	광채기
건네기	쇄석거리
닷거리	조곤닷거리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

진허리	성발리
모살캐	중록캐
머리깨	웃물캐
성산안캐	오정캐
용당알	동녕알
뱃각	달여각
난여목	한둔목
물거	판서
겨무새끼	고별감빠진소
섭지	수내밋
안수	절미바위

2. 說話에 依한 地名

- ① 새가름골 : ‘안가름’에서 이 마을로 이주할 때 가장 먼저 形成되었던 곳이다.
- ② 안골 : 部落 안쪽에 있다고 해서 붙여진 동네 이름이나 現在는 部落入口쪽에 位置하고 있다.
- ③ 생이집목 : 現在 里事務所가 位置해 있는 곳이다. 葬事지낼 때 쓰는 喪輿를 놓았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④ 다리목 : 이 동네는 본래 논이었는데 이 논이 두둑이 여러 동네를 연결하였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 ⑤ 짐수각 : 옛날 ‘김수장군’이 ‘김통정장군’을 붙잡으려고 陣을 쳤던 곳이다.
- ⑥ 논골 : 다리목과 마주한 동네로 現在는 마을의 가장 中央이 된다.
- ⑦ 역물동네 공팔동네 : 옛날에는 여기까지 바닷물이 밀려 왔었으나, 방파제를 쌓고, 동네가 이루어졌다.
- ⑧ 소금막 : 공팔동네 바로 옆에 있는, 여기까지 밀려들어온 바닷물을 모아서 소금을 구웠던 곳이다.
- ⑨ 앞동네 : 소금막 서쪽에 있는 마을로 동남 部落으로 가는 길 앞에 있다.
- ⑩ 관집터 : 옛날 이곳에 官家가 位置하고 있던 場所라고 하는데서 붙여

진 이름인데, 지금은 절간이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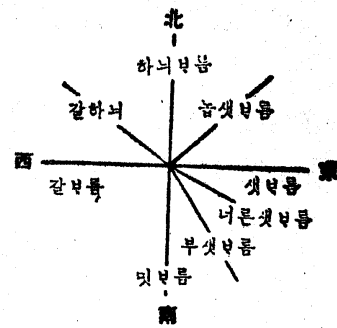
- ⑪ 병문길 : 倭亂이 일어났을 때 兵士들이 집결했던 곳이다.
- ⑫ 잔못길 : 동남부락으로 가는 곳이며 성터가 있었다 한다.
- ⑬ 玉女散髮型 : 現在 식산봉을 가리키는 것으로, 玉女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있는 形態라고 한다.
- ⑭ 장시머들 : 식산봉의 앞쪽에 있고, 玉女와 關聯된 곳인데, 玉女의 남편이 죽어서 이 ‘장시머들’이 되었다고 한다.
- ⑮ 쌍월너 : 장시머들의 약간 동쪽에 있으며 玉女가 ‘남편’을 어디에 葬事지낼까 할 때 여기에 두개의 달(月)이 보였다고 한다.
- ⑯ 반제동산 : 國慶日에 祭祀를 지냈던 곳이다.
- ⑰ 포제동산 : ‘식산봉’ 중턱에 제단을 마련하고, 部落에 幸運이 깃들도록 1年에 한번씩 祭祀를 지냈다고 한다.
- ⑱ 관세터 : ‘반제동산’ 바로 옆에 있으며 酺祭를 위해 沐浴齋戒를 하던 곳이다.
- ⑳ 모살동산 : 지금도 骸骨이 가끔 나온다고 하는 곳으로서 倭軍이 여기서 격퇴되었다 한다.
- ㉑ 불미술 : 안카름에 있으며 夫氏의 家門과 關係된 이야기가 있는 곳이다.
- ㉒ 갈마음 : ‘짐수막’의 異名인데 ‘짐수각’ 동네가 마치 몹씨 굶주린 말이 엮디어서 물을 먹고 있는 形態라고 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 ㉓ 죽지 : 倭亂이 일어났을 때 婦女子들이 避難을 하여 生活하던 곳인데 ‘일뿔당’을 치렀다는 說이 있다. 그 後에는 祭祀를 지내기도 했다.

3. 風 名

이 風名은 地域마다 틀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現象은 우선 地理的인 條件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部落과 正反對의 地域이라고 할 수 있는 中文面 中文里와 比較하여 보면 中文里에서는 南風을 ‘마포름’, 西風을 ‘섯보름’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는 南風을 ‘밋보름’, 西風을 ‘갈보름’이라고 한다.

또한 方向에는 關係없이 부는 特殊한 바람에는, 中文里에서는이리 저

리 불어대는 ‘돌풍’과 회오리바람의 一種인 ‘돛갱이주재’라는 것이 있는 반면, 吾照里에서는 오랫동안 세게 분다는 ‘궁근 샛벼름’, 여러날 동안 약하게 분다고 하는 ‘지름 샛벼름’ 등이 있다. 그외에 ‘집센 샛벼름’이라는 것이 있으며, 대부분 동쪽에서 불어 오는 바람이 많다.



4. 潮 水 名

이 潮水名 역시 風名과 마찬가지로 다른 地域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涯月面에서는 초하루가 ‘일곱물’로 시작되는데, 吾照里에서는 초하루가 ‘여덟물’로 시작된다. 또한 ‘막물’ 다음에는 ‘아끈지기’, ‘한지기’의 순서로 되다가, ‘훈물’, ‘두물’ 등으로 된다. 그러나 中文面 中文里에서는 ‘한기지’ 다음에는 ‘부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날부터 ‘훈물’, ‘두물’로 되는 것이다.

1일 = 여덟물	2일 = 아홉물
3일 = 열물	4일 = 열훈물
5일 = 열두물	6일 = 막물
7일 = 아끈지기	8일 = 한지기
9일 = 훈물	10일 = 두물
11일 = 서물	12일 = 너물
13일 = 다섯물	14일 = 여섯물
15일 = 일곱물	16일 = 여덟물
17일 = 아홉물	18일 = 열물
19일 = 열훈물	20일 = 열두물
21일 = 막물	22일 = 아끈지기
23일 = 한지기	24일 = 훈물
25일 = 두물	26일 = 서물
27일 = 너물	28일 = 다섯물
29일 = 여섯물	30일 = 일곱물

5. 飲食名

飲食名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밥’ · ‘범벅’ · ‘떡’에 대한 種類만을 調査했다.

(1) 밥종류

- ① 물촉밥 : 익어버린 밥.
- ② 꼬도밥 : 쌀이 익지 않은 밥.
- ③ 대촉밥 : 대죽 이라는 쌀로 만든 밥.
- ④ 포대밥. ⑤ 툇밥

(2) 범벽종류

- ① 모멸범벅 ② 대축범벅
③ 논쟁이범벅

(3) 떡종류

- ① 강정 : 좁쌀가루로 동그랗게 만들고 기름에 튀긴 후, 엿을 묻히고 좁쌀을 묻힌다.
- ② 과지 : 조선 밀가루로 만들어 튀긴 산뒤편(쌀의 種類)을 입힌다.
- ③ 우지시 : 祭祀를 할 때 밀가루로 별처럼 만든 다음, 기름에 튀겨 설탕을 묻힌다.
- ④ 정기 : 모밀쌀로 넓적하게 만든 다음 가운데 여러가지 맛있는 것들을 놓고 돌돌 말아서 만든다.
- ⑤ 지팬
- ⑥ 절뎨
- ⑦ 중개
- ⑧ 약개
- ⑨ 조개 송편
- ⑩ 인절미
- ⑪ 유인
- ⑫ 상외떡
- ⑬ 돌떡
- ⑭ 송편

(4) 葬事 때 쓰는 밥종류

- ① 산젯미 : 葬事를 하기 전에 산터에서 하는 젯밥.

- ② 성복티 : 入棺할 때 쓰는 젓밥으로서 상꾼들은 이때부터 禮服을 갖춰 입는다.
- ③ 하관티 : 下棺을 할 때 祭를 지내면서 使用한다.
- ④ 일꽃티 : '일꽃제'를 지낼 때 使用하는 젓밥이다.
- ⑤ 초젓티 : 葬事가 끝나면 使用된다.

6. 衣 服 名

濟州道の 全域에서의 衣服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平常時, 또는 禮式때에 따라 衣服도 다르겠지만 '옷' · '모자' · '신' · '禮服' 등을 조사하였다.

女子들이 입는 옷에는 치마 · 저고리 · 바지 · 꼬장중이 · 단속옷 · 굴중이 · 존등띠 · 속옷 · 적삼 · 바당물옷 등이 있고, 男子들의 옷에는 쪼끼 · 바지 · 저고리, 겨울용 衣服인 후루매, 여름용인 두루막 · 복옷 · 우장, 바다에 갈 때 입는 뚜테물체 등이 있다. 모자에는 후양 · 병것 · 복감태 · 가죽감태 · 풍둥이 등이 있으며, 신에는 나막신 · 초신 · 가막창신 · 정갈피신 · 회 등이 있다. 또한 禮服에는 장옷 · 쾌지 · 갓 · 관복 · 풍등 · 각피 · 횡경 · 단님 · 이명거리 · 양태몬감소(냉기) · 검은황노 등이 있다.

7. 遊 戲 名

女子들 사이에 傳承되는 遊戲가 적은 탓으로 男子들에 비해 그 語彙數도 女子側은 적은 편이다. 옛날이나 現在나 바쁜 生活에 매달려 있는 것이 가장 큰 原因이라 할 수 있다. 소수의 것들이나마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女子 遊戲名

공기 · 방치기 · 오조매 · 고무줄 · 하시다리 · 다수거니.

② 男子 遊戲名

연날리기 · 씨름 · 고양이치기 · 채치기 · 생이치기 · 팽이치기 · 윷놀이 · 기와 다마치기 · 뺑짱치기 · 요꼬마리 · 총팡 · 훔발뛰기 · 고블래기 · 팔자놀이 · 하시다리 · 생이잡기 · 죽마지우.

8. 地域的 特殊方言

- ① 조크르 메레 감저 : 델감으로 使用할 수 있는 ‘조’의 뿌리를 캐러 간다.
- ② 가시리 메레 감저 : 풀의 材料인 우뭇가사리를 캐러 간다.
- ③ 쉼 ㄹ끄레 글라 : 소를 몰고 풀(草)을 먹이러 가자.
- ④ 도채비 우장코 담다 : 비, 바람을 막기 위하여 방문 앞에 쳐놓은 ‘우장’의 날을 하나하나 세어 본다는 뜻으로, 부질없는 行動을 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다.
- ⑤ 유서 : 結婚式을 할 때, 신랑이 탄 말을 끌고가는 사람을 가리킨다. 서쪽지역에서는 ‘소완’이라고 한다.
- ⑥ 하인각시 : 신랑방에 밥상을 들고 가며, 그외에 잔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다.
- ⑦ 제반거던저 : 제사를 끝낸 후에 젓상 위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떼어 놓는 일.
- ⑧ 올히노리 : 結婚式을 올리기 바로 前에 新郎이 나무로 만든 오리를 新婦집으로 가지고 와서 마당에서 제를 지내는 것을 가리킨다.
- ⑨ 채무새 : 채소종류를 묻히는 것.
- ⑩ 상뒤 나옵서 : 會議에 參席하라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큰소리로 외치는 일.
- ⑪ 꿩꿩 : 가마의 異名
- ⑫ 꿩 : 가족으로 만든 신.
- ⑬ 브르뎡이 : ‘부지깽이’와 혼동하여 쓰이는 말이며, 부엌에서 쓰는 도구의 하나이다.

說 話

目	次
1. 食山峰의 生成 由來	4. 力士 宋禮集
2. 食山峰의 名稱 由來	5. 都訓長 吳氏
3. 연 두 밋	6. 설문데할망의 전설

1. 食山峰의 生成 由來

城山面 吾照里 사람들은 食山峰의 모양을 玉女散髮型이라고 말한다. 이는 아름다운 女子가 머리를 풀어 헤친 모습과 같다는 뜻으로 여기에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夫氏姓을 가진 한 머슴이 吾照里 서쪽 ‘불미술’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웃집의 玉女라는 아름다운 처녀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夫머슴은 대장장이의 아들로써 한낱 賤民에 불과했으나, 良民의 신분이었던 玉女와는 쉽사리 결혼할 수가 없는 처지였다. 그러면서도 둘은 언젠가는 그들이 서로 부부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으며, 또한 굳게 言約한 터였다.

어느날, 이 고을을 지키는 助防將이 거리를 지나다가 玉女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는 탐을 내게 되었다. 그는 玉女를 자기의 첩으로 삼고 싶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玉女의 내력을 물으니 마을 사람들은 玉女와 夫머슴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말과, 멀지 않아 결혼을 하게 될 것이라

는 이야기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을 들은 조방장은 불현듯 시기심이 생겼다.

관청으로 돌아온 조방장은 어떻게 하면 玉女를 자기의 첩으로 삼을 수 있을까 하고 온갖 궁리를 다하였다. 결국, 궁리 끝에 夫머슴을 죽이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玉女를 힘 안들이고 자기가 차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서였다.

다음날, 조방장은 夫머슴을 잡아다가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목을 매어 죽인 다음, 시체를 동쪽 해안에 내다버렸다. 그리고는 玉女를 잡았다. 가 자기에게 수청들 것을 요구했으나 끝내 거절을 하자 심한 고문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 玉女마저 내쫓아 버렸다. 쫓겨나온 玉女는 사랑하는 夫머슴의 시체를 찾아 정신없이 헤매던 끝에, 동쪽 해안가에 목줄린 채로 숨져 있는 夫머슴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玉女는 북바치는 선움을 참아가면서 정시(地官)와 더불어 夫머슴을 묻을 명당을 찾아 온 섬을 방황했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었다. 玉女는 夫머슴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목놓아 울었다. 玉女가 울다울다 지쳐서 쓰러지자, 돌연 玉女の 몸은 食山峰으로, 夫머슴의 시체는 '장시머들'로, 그 옆에 있던 관은 일출봉으로 각각 변해 버렸다.

지금도 食山峰 중턱에는 '창굴돌'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불미술'을 마주 보고 있으며 玉女の 눈이 변한 것으로서 조방장이 있던 '불미술' 근방을 원한에 찬 눈으로 노려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 돌이 '새가름골'에 비추게 되면 동네가 망한다고 하여 그 돌이 비추지 못하도록 나무를 심어 보호한다고 한다.

2. 食山峰의 名稱 由來

朝鮮時代에는 吾照里 海岸에 倭賊이 자주 침입했었다. 특히 임진왜란을 전후한 몇년 사이에는 왜적의 침입이 극도에 달했다.

이 당시 吾照里 海岸에서는 倭賊을 退治하기 위해서 助防將이 중심이 되어 '안카름'에 義勇兵士를 모집하여 陣을 치고 있었다. 조방장은 마을 사람들에게 '느래미'(난가리를 덮는 이엉)를 만들게 했다.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 하면서도 조방장의 명령대로 많은 '느래미'를 만들어 바쳤다. 조방장은 병사들에게 食山峰 전체에 '느래미'를 덮도록 한 뒤, 여러 사람에

제 자기의 의도를 설명했다.

드디어 倭賊이 吾照里 해안에 나타났다. 그들이 멀리서 바라보니 食山 峰은 마치 山만큼 쌓인 軍糧米로 보였다. 왜적들은 군량미가 저렇게 많으니 군사들의 수도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하여 상륙도 하기 전에 모두 도주해 버렸다. 그제야 吾照里 주민들도 助防將의 지휘에 감탄했으며, 왜적의 침입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다.

3. 연 두 밧

朝鮮時代에는 제주도의 해안, 특히 동쪽 해안에 倭寇의 침입이 매우 잦았었다. 임진란을 전후해서는 왜구의 침입이 극심했었다.

吾照里에서는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연두밧’이란 곳에 城을 쌓고, 날마다 마을의 젊은 靑年들로 구성된 監視員이 순번을 정하여 망을 보게 했다. 이때는 연락 방법으로 烽火를 사용했는데, 이 마을 해안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는 한 자루의 烽火를 올렸으며, 멀리 수상한 배가 보일 때는 두 자루, 그 배가 차츰 마을쪽을 향해 다가올 때는 세 자루, 그 배가 상륙했을 때는 네 자루를 켜는 동시에 旌義刑房이 쓴 전통을 濟州牧에 있는 牧使에게 바쳐서 위급함을 알렸다. 이에 제주 목사는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왜적을 퇴치시키곤 했다.

이때 전통은 사태가 급박하므로 누구든 간에 命을 받는 사람은 말을 타던가, 그렇지 못하면 뛰어서라도 밤이 새기 전에 전통을 목사에게 전해야 했는데, 濟州牧으로 가는 도중 지쳐서 죽은 사람도 있었으며, 자기가 갈 자신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품 속에 얼른 집어넣고 달아나 버리기도 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전통을 所持하게 된 者는 하릴없이 濟州牧을 향해 死力을 다하여 가야만 했는데, 도중에 죽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를 濟州牧으로 향해 죽어야 했다. 만약 머리를 자기 집 방향이나 해변쪽으로 향해 죽으면 國事보다도 고향의 처자만을 생각하다 죽었다고 하여 그 죽은 자의 머리를 다시 베었으며, 그 가족에게도 逆賊의 連累罪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가끔 烽火를 담당한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락이 늦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럴 때는 제주 목사가 不問曲直하고 봉화담당자의 목을 쳐서 先斬後啓했다고 전해진다.

4. 力士 宋禮集

宋禮集은 일제 강점기 전의 사람으로서 기골이 장대한 天下將士였다. 키는 보통 사람보다 한 尺이나 더 컸고, 몸집은 양팔이 더 되며, 얼굴이 어찌나 크고 넓은지 ‘마당송천충’, ‘별똥송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다.

하루는 禾北 鍊武亭에서 濟州·旌義·大靜의 三縣 대항 씨름대회가 열렸는데 宋禮集은 旌義縣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다. 그 당시 宋禮集은 喪主의 몸이었는데, 제주목에서는 상주는 죄인이라 하여 출전을 금지시켰다. 이에 宋禮集은 ‘테역덩이’(잔디덩이) 12덩이를 차곡차곡 올려 놓고 주먹으로 한번 내려치니 ‘테역덩이’는 두쪽으로 썩 쪼개어져 버렸다. 거기에 모였던 관중들은 모두 다 놀랐다.

宋禮集은 牧使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비록 소인은 罪人이올시다만 한번 對戰하는 영광을 베풀어 주십시오’하고 간곡하게 請하니 목사도 한번 씨름을 해 보라고 허락하였다.

宋禮集은 出戰하면서 잔디밭을 쪽 밀었는데 그만 땅이 움푹 파였다. 그는 심판에게 “씨름하다가 만약 相對便이 죽어도 사람 죽인 죄는 없을 테지요?” 하고 묻자, 상좌에 앉았던 목사가 생각하기를 저놈과 相對하는 사람은 죽거나 아니면 크게 負傷당할 것이 틀림없다고 여기고는 여러 사람에게 命하여 “씨름하지 말아라. 旌義가 이겼다. 복을 올려라.” 이렇게 해서 宋禮集은 씨름을 하지도 않고 勝利했다.

이 당시는 倭賊의 침입이 잦았는데 하루는 倭賊船이 吾照里 해안 ‘통바다리’에 상륙했다. 宋禮集은 이 소식을 듣고 바닷가로 달려가서 倭賊의 배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앞에 보이는 대로 倭寇 10여명을 물속으로 잡아 던지고 밧줄을 끊어서 배의 ‘이물코지’에 묶은 다음, 다시 그 배를 ‘진모살동산’까지 끌어 올리자 倭寇들은 겁에 질려 모두 도망치고 말았다 한다.

宋禮集의 힘 자랑은 이것 뿐이 아니다. 한번은 鐵杖을 무릎에 올려 놓고 그것을 구부렸다 폈다 했으며, ‘쇠스럼발’을 손으로 꺾었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宋禮集이 天下壯士라는 사실은 全島에 알려져 있었다. 가끔 다른 마을에서 자기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이 마을에 따지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宋禮集이 그 자리에 나서기만 하면 모두 다 공포를 빼고 말았다.

그러나, 宋禮集은 힘만 센 것은 아니었다. 학문에 뛰어나서 吾照里의 訓長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성품도 온순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였다고 전한다.

5. 都訓長 吳氏

吳氏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래서 繼母를 맞아들이게 되었는데, 繼母는 매우 賢明하고 仁慈한 여자였다.

하루는 繼母가 바다에 잠수질 하러 나가면서 마당에 곡식을 넣어놓고는 吳少年에게 “결심히 공부하고 있거라”하고 나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오후에 억수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繼母는 넣어놓은 곡식이 걱정이 되어 급히 집에 돌아왔으나, 곡식은 이미 말끔하게 거둬들여져 있었다. 물론 吳少年이 치운 것이다. 繼母는 吳少年을 불렀다. 吳少年은 속으로 ‘나를 칭찬해 주시려는가 보다’하고 의기양양하게 繼母 앞에 나타났다. 나뭇밖에도 그녀의 얼굴은 노기가 등등해 있었다. “아침에 내가 밖으로 나가면서 뭐라고 했더냐? 공부하고 있으라 했지? 너는 공부는 안 하고 정신을 딴 데 팔고 있었구나.”

繼母는 吳少年을 엄하게 꾸짖고는 회초리를 들어 吳少年의 종아리를 마구 때렸다. 吳少年은 묵묵히 맞고 있었다. 繼母의 자상한 意圖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다음날도 繼母는 잠수질 하러 가면서 곡식을 넣고 나갔다. 그런데 이날도 역시 큰 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吳少年은 비가 오는 줄도 모르고 공부에만 몰두해 있었다. 繼母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곡식이 모두 비에 씻겨 떠내려간 뒤였다. 繼母는 매우 기뻐하였다. ‘이녀석이 이제야 정말로 공부하고 있구나’ 생각하고는 吳少年을 칭찬하고 닭까지 잡아 먹었다. 이렇게 繼母와 吳少年의 노력한 보람으로, 吳少年은 장성하여 都訓長에 뽑혔다.

吳氏가 都訓長이 된 후, 몇해 안 가서 繼母가 돌아갔다. 이에 吳氏는 오열하며 몸소 繼母의 喪을 차리고 喪主 노릇을 했다. 그런데 당시의 습속으로는 長子가 繼母의 喪主노릇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吳氏의 이같은 일을 부당하다 하여 말리자 그는 “나의 生母는 나를 낳고 죽었다. 그후 나의 繼母가 오늘의 나로 길러 주셨으니 낳은 정이나 기른

정이나 마찬가지로 아니겠느냐?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해서 상주노릇을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된다는 말이나?”라고 대답했다. 이에 제자들이 무릎을 꿇어 더욱 都訓長의 人品을 우러렀다는 이야기다.

6. 설문데할망의 전설

‘설문데할망’은 제주도 女神 중 가장 많이 알려진 神이다. 이는 굉장한 巨神으로서 漢拏山을 베개 삼아 누우면 발이 바닷물에 잠겼다고 전해질 정도다. 그는 또 五百將軍의 어머니라고도 하는데 그의 死亡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전한다. 그 하나가 ‘물장오리’에 빠져 죽었다는 내용이고, 또하나의 이야기는 오백이나 되는 아들들의 죽을 꿔이다가 가마솥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 巨神의 이야기가 많이 전하지만 거의가 그 지방의 地形이나 특수성 등에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내용은 그 할망神이 명주 백동으로 자기의 속옷을 만들어주면 육지까지 다리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서, 제주 사람들이 명주를 있는 대로 모았지만 안타깝게도 99동밖에 되지 않아 결국 이 할망神은 다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城山面 吾照里에서만 특이하게 전해지는 것이 있으니, 그 할망이 食山峰과 日出峰에 양 발을 딛고서 소섬을 빨랫돌 삼아 바닷물에 빨래를 했다는 내용의 것이다. 또 日出峰에 ‘바농상지돌’이 있는데 그곳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고도 전한다.

信 仰

調 查 協 助 者

오영두 (男, 66歲)	방정순 (女, 60歲)
박태홍 (女, 57歲)	백훈우 (男, 31歲)
김정풍 (男, 53歲)	양정운 (女, 46歲)
강춘향 (女, 66歲)	채진기 (男, 47歲)

目	次
I. 概 觀	2. 巫式 部落祭
1. 背 景	III. 家庭信仰, 祖上崇拜 및 其他
2. 公認宗教現況	1. 家宅神과 그 儀禮
II. 部落信仰	2. 崇 祖 祭
1. 儒式 部落祭	3. 쇠 맹 질

I. 概 觀

1. 背 景

宗教란 모름지기 人間들이 人間의 힘 그 自體로써 成就할 수 없는 일을 實現해 보자는 데서 생겨났음직하다. 宗教現況을 살펴볼데 있어서 소규모의 一部地域만을 살핀다 해도 그 地域의 地理·歷史의 背景을 無視할 수

는 없다. 그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 ① 吾照里는 濟州島의 一地域이요, 南濟州郡의 一個 部落이다. 따라서 濟州島의 宗教構造를 지니면서도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바다에 對한 宗教的 特性이라는 一般性을 어느 정도 지녔을 것이다.
- ② 吾照里는 城山面의 一部落이요, 東으로는 城山浦, 西로는 水山里, 南으로는 古城里, 北으로는 始興里와 細花里에 接해 있으며 이 周邊 部落의 信仰과도 밀접한 關係가 있을 것이다.
- ③ 吾照里는 海岸에 接해 있는 海岸部落이고, 濟州道內 漁村契 가운데 從級 漁村契를 組織하고 있고, 漁業이 主産業이다. 따라서 그 信仰構造도 漁業과 關係가 깊을 것이다.
- ④ 이 마을 東北쪽 바닷가에는 食山峰이 있고, ‘안카름’이라는, 最初에 이 마을이 있었던 터가 있어 갖가지 전설이 얹혀 있다.

이번 調査에 있어서 里民들은 信仰에 對해 關心이 많으며, 특히 바다에 關係된 信仰이 特色的이었다.

2. 公認宗教의 現況

현재 濟州道內에서 宗教로 公認되어 있는 것은 佛教・天主教・基督教・水雲敎・其他 新興宗教들인 바, 吾照里에는 佛教寺刹(1개소)이 있다. 公認宗教의 信徒數는 약 半數에 達하는데, 200家口(男 597名, 女 678名) 가운데 公認宗教 信徒家口는 佛教信徒 家口가 70家口 정도이며 安息敎가 20名, 天地大安敎, 王國會館이 약간수 있어 半數가 公認宗教요, 나머지 半數가 民間信仰層이 된다. (以上 里事務所의 統計에 따름) 그러면 公認宗教의 現況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1) 安息敎

가) 沿革: 1911년 平南 순안에서 비롯되었으며 原名이 ‘第七日安息日에 수再臨敎會’이고 여기에서는 1950년서부터 현재 백훈우씨까지 계속되고 있다. 古城里(東南)에 敎會가 있는데, 總本部는 워싱턴에 있으며 韓國本部는 서울에 있다. 그리고 濟州道の 本部는 濟州市 五賢壇 뒤에 위치하고 있다.

나) 敎人現況: 敎人數는 42名이다. 이들을 性別로 보면 男子가 24名,

女子가 18名으로 대개 家族들로 構成되어 있으며 吾照里에서는 20名 정도가 된다.

다) 布敎地域 : 古城里를 비롯하여 吾照里, 城山浦 一帶이며, 敎理는 經典인 '성경(Bible)'에 依하고 있다.

라) 禮拜 : 一週日에 火·金·土曜日에 限하여 禮拜를 본다. 基督教系統과는 달리 이 宗教는 日曜日은 禮拜도 않고 日曜日을 否定하고 있다.

火曜日과 金曜日은 20時 30分부터 오후집회가 시작되며, 安息日인 土曜日은 9時 30分부터 10時 30分까지 오전집회가 있고 모든 일을 멈추고 쉰다. 그리고 술·담배는 허용되지 않으며 魚·肉類도 비늘이 있는 고기와 소·양을 제외하면 먹지 않는다.

마) 布敎方法 : 調査에 依해서 布敎를 하며 國民의 의무는 충실히 遂行한다. 다른 基督教系統과는 달리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않으며 그들이 즐기는 날은 오직 安息日인 土曜日인 것이다. 또한 이른바 洗禮를 여기서는 '沈禮'라 하는 것이 특이하다.

바) 分布狀況 : 교직자는 四年制 大學을 마치고 나온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있어 다른 基督教系統과 同一하다. 敎會의 分布는 道內에 西歸·慕瑟·咸德·於音·表善·濟州市와 이곳 東南(城山面 古城里) 등에 分布되어 있으며 全世界에 6個國을 除外한 모든 나라에 分布되어 있다 한다.

2) 佛 敎

가) 沿革 : 1960年 현재 주지승인 김정풍씨에 의해 吾照里 850番地에 寺刹이 建立되었다. 寺刹名은 奉願寺이며 法華宗派이다. 本部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93番地에 있으며 大韓佛敎 法華宗 總務院으로 되어 있다.

나) 信徒 : 信徒는 정확한 수를 헤아릴 수 없다. 安息敎처럼 他宗教와 分明히 線을 긋는 것이 아니라, 佛敎信徒는 必要에 따라 무당(巫覡)을 찾아 巫俗儀禮를 하기도 하고, 儒式儀禮에 依存하기도 하는가 하면 때로는 寺刹을 찾아 佛供을 하기도 하는 信徒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70戶 内外의 信徒 中에는 特히 女子가 많으며 50代 이상의 信者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실은 佛敎가 民間信仰과 같은 性格을 띠고 있어 서로 習合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一例로서 이곳 주지승인 김정풍씨의 말을 들

어 보기로 하자.

충청도에서 본 일이다. 어떤 사람이 鬼神에 들렸다(憑依했다). 이 鬼神을 처치하느라고 무당 3人이 복숭아나무가지를 반으로 쪼개어 거기에 鬼神의 이름을 써 놓고 3日間을 밤낮으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그 나무가지가 이미 옆에 갖다 놓아둔 병속으로 저절로 들어가고 그 병은 또 저절로 경충경충 뛰면서 밖으로 도망가려는 것이다. 무당은 이것을 얼른 잡아다가 밀가루 반죽으로 병입구를 막아 콜타르(아스팔트 포장용 기름찌꺼기)가 듬뿍 든 드럼통 속에 집어 넣어 두경을 단단히 산소용접했다. 그래서 이 드럼통을 산에 운반해다가 묻어 버렸다. 그렇게 하여 그 귀신들린 사람은 병이 나았는데, 만약 그 鬼神이 밖으로 나오면 그 家門은 몰살당한다.

주지승은 이 治病法을 펴 信奉하는 투로 이야기했다. 이것은 佛教가 얼마나 民間信仰的인가를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吾照里內의 信徒는 고작 20名 内外라 하며, 東南과 始興에서도 온다고 한다.

다) 經典: 경전은 持誦篇 三寶禮中에서 一心頂禮 十方一切과 常住佛, 常住法, 常住僧 등이 있다. 僧은 마음을 곧게 먹고 南北統一을 祈願한다 하여 護國佛教의인 느낌이 들게 했다.

라) 禮拜: 대개 한달에 한번 정도 4時~5時, 18時~19時 사이에 佛供을 한다. 곧 1月 15日 道通佛供, 2月 15日에 燃燈佛供, 3月에는 없고, 4月 8日 誕辰日, 5·6月은 없고, 7月 7日 七月七夕, 7月 15日에 百中佛供, 8月 15日 秋夕, 9月 9日 영혼에 對해서, 10月 15日의 佛供이 가장 규모가 크며 陰 11月에 冬至, 그리고 12月 8日 成道日 등의 佛供이 있다. 또한 涅槃日이 있으며 合掌拜禮한다.

布敎는 他敎와 같이 다니면서 傳道하는 것이 아니라 強制性이 없이 信徒가 스스로 찾아오는게, 患者인 경우 병치료와 精神修養을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마) 職制: 맨 위에 主持僧, 다음에 總務·會長·副會長·化主菩薩·一般信徒의 順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化主菩薩이라 하면 幹事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알기 쉽다. 寺刹의 數는 濟州道內에 33개 있으며 信徒는 肉類는 禁해야 한다. 任員職에 있는 信徒가 婚姻할 경우는 法堂에서 그 禮式을 치르며 寺刹內에 살아야 한다.

3) 王國會館

가) 沿革: 本部가 뉴우옥 브리크리에 있으며 1919年 이전서부터 계속 활동하여 1936년에 등록, 하나의 宗教로서 定立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王國會館은 現在 방정순씨에 의해 吾照里 61~1番地에 1969年 11月 設立을 보았던 것이다. 王國會館에서는 王 곧 하느님의 메시아가 내려와 온 나라를 統合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고 믿고 있다.

나) 信徒: 他宗教는 대개 40代 이후가 믿고 있지만 이 王國會館은 20代 前後의 젊은 層이 많다. 그리고 他道에서는 女子들이 많지만 濟州道에서는 男子들이 많다. 왜냐하면 他道에서는 男子가 職場에 나가기 때문에 전도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濟州道內에서는 이에 反하여 女子가 밭에 나가 노동하는 時間이 많기 때문이라 한다. 現在 信徒數는 20名이다. 他宗教에 비해 信徒數는 미미하다. 그 이유는 住民이 이 宗教에 대해 관심이 많지 않고, 설사 관심이 있더라도 그 敎理가 實現不可能이라 느끼기 때문에 적은 것이라 하는 이가 있었다. 그러나 傳道師는 100名에게 傳道해서 20名이 들어와도 만족하다고 한다. 20名을 惡의 소굴에서 救出하여 부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信徒들의 構成을 보면, 濟州道民은 4名에 불과하고 대개가 韓本土 곧 他道에서 移住한 사람들이라 한다. 濟州道民은 信仰에 별로 興味가 없는 것 같다고 방씨는 말한다.

다) 敎理: 敎리는 經典인 聖經(Bible) 그대로를 실천하는 것이다. 例를 들어 現在 이 敎人들은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聖書에 하느님은 戰爭을 열지 않았다는 데에 根據를 두어 聖書 그대로를 實踐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臺灣에서는 병역을 기피하여 終身懲役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따라서 聖書에서 一點이라도 틀리면 '여호아의 證人'이 될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다. '생명이 없어지더라도 병역에는 參加할 수 없으며 參加시킬 수도 없다. 國家의 法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法을 人間이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병역에 참가하여 살인할 수 없다.'고 極言하기까지 한다. 또한 國權崇拜는 偶像崇拜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오직 숭배대상으로서 存在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한다. 이런 투철한 信仰心으로써 天主教에서 말하는 공심판, 곧 공리의 심판을 믿고 있다. 7000~8000년 사이에 '아마케도니아'라는 人間이 대규모로 죽는 混亂

의 時期가 찾아온다고 한다. 그러나 王國會館은 創世記 15장 15절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자비하여서 6000년 이후에 모든 人間世界를 樂園으로 回復시켜 거기서 탈락된 者만이 영원히 '계헨나'인 죽음(惡)의 무덤으로 돌아가고 구원된 자만이 '하데스' '스홀'이라는 희망의 무덤으로 영원히 들어가 復活한다고 한다. 간단히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人間世界에서 하나님의 敎理를 본받은 사람은 復活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13만 몇천명이 천당 -여기서 말하는 '적은 무리'-에 들어갔으며 14만 4천명쯤이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어 이 世上에 王國을 건설한다고 믿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곧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 禮拜: 時日은 定하지 않고 火曜日은 밤 8시부터 1시간 동안, 日曜日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集會를 한다고 한다. 集會는 혼자서, 例를 들어 聖書 몇장 몇절에 나오는 것에 關해 研究하고 느낀 점을 發表하는 것이다. 發表者는 一週日前에 準備하도록 定해진다. 禮拜는 聖書를 완전히 順序대로 通達해 가는 것이다.

나) 布敎: 이 王國會館은 表善面 表善里에서부터 舊左面 坪垈里까지를 구역으로 傳道하고 있다. 그리고 傳道方法은 강제성이 없다. 싫다고 않으면 계속 찾아가 被傳道者에게 모든 것을 聖書的으로 說明하여 좋다면 信徒가 되는 것이고 싫다면 안되는 것이다. 王國會館은 世界 108개국에 分布되고 있으며 傳道費는 美國 워치타워에서 보내 주고 있다. 우리나라 本部는 서울 西大門 忠正路 二街 65~19番地에 위치하고 있으며 濟州道內에는 濟州市·翰林·琴瑟浦·西歸邑과 吾照里의 王國會館을 합쳐 5개소가 있다.

바) 職制: 연령이 많은 元老者 곧 老令者들에 限하여 '長老'가 될 수 있다. 奉仕했다고 해도 고작 聖書를 通達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傳道人에 불과한 것이다. 聖書를 通達하고 老令者이며 독실한 信仰을 가진 사람을 '長老'라 하여 會를 다스린다.

4) 天地大安敎

가)沿革: 개원 28년 戊戌年에 設立을 보았다. 天地大安敎는 韓國의 新

興宗教 12系統中の 하나로 奉西敎의 敎祖 金奉西先生이 죽자, 女信徒였던 부경순이 設立하였다. 天地大安敎를 세운 부경순은 舊左面 終達里에서 1902年 6月 27日에 태어났으며, 8년전 60세를 一期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天地大安敎를 세운 후에 이름을 改名하여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海月仙님'이라 불러, 스스로 敎主가 되었으며 現在 이 지역에서는 吾照里出身인 梁丁允氏가 敎主로 되어 있다. 그는 最初로 始興里에서 建立하여 吾照里에서 8년전 細花里로 이사했다. 敎團은 釜山 影島에서 忠南 鷄龍山으로 옮겨, 그곳을 本山으로 하고 夫氏는 鷄龍山(三神山)에서 '度敎會事'라는 一種의 禮拜를 보았다.

나) 信徒: 天地大安敎는 全國 信徒數가 3,000名으로 濟州道內에는 全國의 70%에 해당하는 信徒가 道內 約 17個所의 法堂에 分布되어 있으며 舊左面 細花里에 있는 法堂에는 약 50名 가량의 信徒가 있다고 한다. 年令層은 50세 이상이 많으며 男子가 여자보다 많은 편이다. 이 法堂에는 濟州市에서도 10名 가량이 온다고 하며 他道에서도 약간名이 온다고 한다. 이 法堂에 다니는 吾照里 信徒는 約 10名으로 여기의 信徒들은 대부분이 患者들이다.

다) 敎理: 敎理는 仁義禮智와 三綱五倫을 基本으로 하며 노란 색깔을 좋아한다. 온통 집안에는 노란색이며 家具와 의복도 노란색이다. 왜냐하면 黃金眞理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白衣가 韓國의 民族性과 主體性을 나타내는 반면, 저고리의 앞쪽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은 母運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法堂안의 둥근 방석 중앙에는 '正'을 써놓고 있는데 그 이유는 '東西洋 한복판에 바를 정자 밝혀 놓고 천지신명 대공해에 심판명령 내려왔네'라고 풀이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여 他敎는 水平運法을 쓰고 있는데 天地大安敎는 母運法인 垂直運法을 쓰고 있다.

라) 經典: 經典은 팔만대장경, 천수대전경, 천수경, 팔원경, 천기팔원경, 둔갑법 등이다. 여기서 海月仙은 海는 천상궁(해월)이요, 月은 중황궁(지하궁)이요, 仙은 민세궁을 뜻한다. 이 關係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即 '통할신자 내려오니 당에 닿자 수운이 되다.'라고 한다.



A는 하나님(海)

B는 통할신자(仙)

C는 月

마) 禮拜: 天地大安敎는 母運法으로 儒·佛·仙敎를 하나로 統一하여 세운 것이다. 禮拜日은 六中福德日이라 하여 5日, 10日, 15日 3번을 치른다. 보통은 매일 아침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 동안 물에 呪文을 외어서 聖水化시킨 청수를 놓고 수양하며 患者에게 이 청수를 뿌리며 法文을 읊는다. 法堂內에는 患者들이 자는 방이 따로 있고, 병을 고치는 患者들은 병이 나을 때까지 있어야 한다. 제일 오래 있었던 患者는 두달반이다. 공사를 치를 때의 呪文(法文)은 '통할신자 해월선님 법계용천 수화상제 용궁신자 교화통령 해월스님'이다. 그 뜻은 '해월선님에게 하느님께서 法을 通해 주셔서 만천하 인민에게 전양케 되다. 순한 수법으로 서로 손목을 잡고 전네줍시다.'(해월선님법, 곧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道라는 뜻이다)라고 한다. 공사를 할 때의 禮服은 황금산 도산진리 황우운이기 때문에 노란 옷과 노란 모자(법모)를 쓰고 있다. 모두 禮拜 때는 法文을 외면서 절을 한다. 이 敎에서는 國法도 잘 지키도록 한다. 國法은 어머니 곧 하나님의 道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월선 어머니의 경계 말씀인 남의 人權을 뺏지 말 것, 남을 後論하지 말 것, 謀略·猜忌·妬忌를 하지 말 것 등과 迷僧打破·偶像崇拜의 금지도 잘 지키도록 강조하고 있다. 개와 말을 제외한 肉類는 먹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로 菜食을 권하고 있다. 그외의 禁忌는 기독교와 同一하다.

바) 傳道: 被傳道者가 교리를 耽讀하다 보면 병도 낫기 때문에 소문을 들으면서 몰려 온다. 一般信徒는 仁義禮智法을, 患者의 경우는 救濟法으로 병치료와 정신수양을 目的으로 한다. 이 敎가 傳道되어 나가는 必然의 原理는 漢拏山 靈氣가 통령법에 의해 국경을 초월하여 世界로 퍼지는 원리 그대로라 한다. 예를 들어 4·19도 천지통령법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이다.

사) 分布狀況: 職制로는 해월선님의 계시를 傳해주는 '선상님'이 있고 그 밑에 男女信徒가 있는데, 女信徒를 '仙女', 男信徒를 '仙官'이라 부른다. 分布狀況은 鷄龍山의 것은 文運이며 오직 여기만이 眞實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道內의 法堂은 濟州市·歸德·高山·板浦·摹瑟浦·古城·終達·溫平 등지에 20여개소가 있고 멀리 日本에까지 布敎되어 있다.

Ⅱ. 部落信仰

部落民들이 全體의 福利를 위하여 行하는 部落祭는 대부분 바다에 對한

것이다. 대체로 儒式의 部落祭는 男性들에 의해 管理, 執行되고 巫式 部落祭는 주로 女性들에 의해 管理되고 있다.

1. 儒式 部落祭

儒式 部落祭에는 醺祭와 海神祭가 있다. 海神祭는 소멸되었고 記憶만이 남아 있다.

1) 醺 祭

① 祭神: 醺神之靈位, 場神之靈位 그리고 怨魂을 對象으로 삼고 있다.

② 祭名: 島內 他部落에서는 '묵을제' · '동넛제' · '거릿제'(街祭) · '致誠祭' 등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는 '部落醺祭'라 한다.

③ 祭日: 一年에 한번 正月에 上丁日 또는 亥日의 子時를 擇하여 行한다.

④ 祭儀管理: 里長이 班長을 通하여 里會를 召集하고 거기에서 祭儀에 所要될 豫算의 規模, 祭官의 選出, 그리고 祭廳의 決定 등을 한다. 祭廳이란 行祭前에 祭官들이 合宿, 齊戒할 집을 말한다. 대개 部落內에서 집이 크고 깨끗하고 고요한 곳으로 定한다.

⑤ 祭官: 祭官은 初獻 · 亞獻 · 終獻 · 執禮 · 大祝 · 贊者 · 謁者 · 奉香 · 奉爐 · 司樽 · 奉爵 · 奠爵 · 典祀官이다. 行祭 3日前에 祭廳에 모여 合宿 齊戒하고 마을의 出入口에 禁줄을 매어 不淨人의 出入을 禁한다.

⑥ 祭物: 白米에 2器, 좁쌀에 2器, 犧牲(돼지1마리), 脯(牛肉), 魚需, 菁菹 1, 芹菹 1, 五果, 술, 毛血과 광목이나 백지의 幣帛, 그리고 전복 · 청목 · 미역채 · 시루떡 등이다. 위 一般的 祭物은 멧밥을 除外하면 모두 날 것으로 올리는 점이 特色이다.

⑦ 祭次: 처음에 紙榜을 써 붙이고, 順序로는 奠幣禮, 初獻禮, 讀祝, 亞獻禮, 終獻禮, 飲福, 掇籩豆, 焚幣의 順으로 行한다. 이렇게 行祭가 끝나면 祭廳으로 돌아와 돼지를 삶아 祭官들이 飲福하고 나머지는 洞內家戶에 分配하기도 한다.

⑧ 祝文: 그 主要 內容은 「人人壽福, 家家安樂, 豐厥百穀, 蕃其六畜, 漁採隆熹, 船舶利涉」을 비는 것이다. 따라서 部落의 모든 福利를 祝願하는 것이다.

㉮) 海神祭

이것은 모래砂場이 있는 海邊에서 行했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지금은 豐漁를 祈願하는 祭로 되어 있어 凶漁가 계속될 때 船主가 祭費를 一切 負擔하고 行한다. 對象은 海神, 龍王 및 그 下位雜神, 바다에서 죽은 孤魂 도깨비神 등 雜多하다. 祭는 正月에 儒式으로 執行되며 參加者는 漁民男子이다. 過去에는 船主, 漁夫, 海女들도 海神堂祭 또는 龍王祭라는 巫式 굿을 지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위의 漁網業者에 依한 海神祭는 本來 巫式의 굿에서 儒式으로 變化한 듯하다.

2. 巫式 部落祭

巫式 部落祭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吾照里에서는 ‘심방’(巫覡)이 없어서 ‘심방’을 만나지 못하여 具體的인 內容을 調査할 수 없었다. 그러나 祭의 種類와 大體的인 內容을 알 수 있었으니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1) 영 등 제

漁夫, 海女の 海上漁業을 守護해주기를 祈願하는 祭이다.

① 祭日: 每年 陰 2月 15日 ‘심방’에 의해 대개 9時頃부터 14時頃까지 行한다.

② 傳說: 이 祭는 ‘영등하르방’ · ‘영등할망’에게 드리는 祭라고 하는데 이 夫婦는 本來 他道에서 들어와 濟州市를 거쳐 西쪽에서 東쪽으로 吾照里를 通해 나갔다는 傳說이 있다. ‘영등하르방’은 吾照里에 들어오자 소라 · 전복 따위의 海산물이 매우 좋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려다가 밀물이 되자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死亡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神에게 굿을 할 땐 굿의 맨 마지막에 이 神을 淸송한다. 그리고 옛 장사를 다니던 中國女人이 破船하여 물귀신이 되었는데, 이 귀신을 ‘영등할망’이라고도 한다.

‘영등할망’은 바다의 神으로 ‘영등’이 들어온다는 陰 2月 1일에 비가 오면 그 期間(영등달, 2月) 동안 장마가 들고, 이 날 날씨가 개면 그 달은 갠다고 한다. 또 그 期間에는 조개 · 보말들이 살찌고 ‘영등할망’이 나가면 그 數가 줄어든다고 한다.

③ 祭物: 메 · 시루떡 · 돌래떡 · 바다고기 · 건과 · 닭 · 술 등과 백지 5~6장 · 실 · 쌀 등이 필요하며 쇠고기 · 돼지고기 등 肉類는 올리지 않는다.

그리고 배가 準備된다. 옛날에는 '도고리'(함지박)를 使用했으나 중간에는 짚으로 만든 배가 사용됐으며 현재는 밑바닥은 나무로 하고 둘레는 짚으로 둘러 만든 배를 準備한다.

④ 굿의 節次: 심방들이 2月 14日날 긴 대를 앞세워 들고 樂器를 울리며 各 家戶를 도는데, 집 문 앞에서 '대 돌아 갑니다. 대 돌아 갑니다'고 외친다. 그러면 各家戶에서는 쌀·돈 등을 내놓으며, 그것으로 祭物을 마련하여 2月 15日날 아침 굿이 시작된다. 먼저 '당반'(선반처럼 만든 祭床)에 마을 全體 祝願用의 祭物과 各 家戶에서 차려 온 祭物을 오는 順序대로 올려 陳設하고 '삼천 뽕맷대'를 세운 다음에 '초감제'로 進行해 간다. 前者는 큰 대를 세워 놓는 것인데 이 대를 '본향대'라 하고, 후자는 신을 청해 들이는 祭順이다. 그 다음이 '예명올린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굿에 參加한 각 집안 사람들을 각각 神에게 告하고 그 福을 비는 內容이다. 이 때 參加한 사람들이 다 神에게 절을 한다. 이어서 '요왕맞이'를 行하고 그 다음에 '제비썰(쌀)을 뽑는다' 이것은 '상잠수'(上潛嫂)·'중잠수'(中潛嫂)·'하잠수'(下潛嫂) 順으로 占을 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본향'을 청하여 기원하고 그것이 끝나면 차리고 온 祭物을 各者가 '지'를 써서 바다에 던진다. '지를 쓴다'라 함은 白紙에 各 祭物을 조금씩 며놓아 찜을 말함인데, 이것을 海上의 安全과 豐漁를 위하여 海神에게 던지는 것이다. 이를 '지드린다'고 한다. 지드린 후 심방은 자그마한 배에 各種 祭物을 조금씩 싣고 멀리 바다에 띄워 보낸다. 그 속에는 '고동'(소라) 5개와 五穀과 산 닭을 사공으로 삼아 태우고 장·소금·소라껍질·물·미역·우무 등을 싣는다. 이것을 '배방선'이라 한다. 그 배가 잘 나가면 豐年이 들고 반대로 물쪽으로 들어오면 凶年이 든다고 한다. 그리고 심방은 여자 수심방(首巫)이 '이명걸이'라 하여 붉은 띠로 이마를 두르고 채자를 입으며, 남자심방은 두루마기를 입고 버선발을 신는다. 손에는 신칼과 요령과 감상기(대나무 기)를 든다.

⑤ 祭官: 里民 대부분이 參加하나 船主와 海女가 주이다.

⑥ 祭費: 新造船의 船主가 主로 부담한다. 곧 시루떡·바다고기 등을 준비하여 선박의 安全, 豐漁를 祈願한다.

⑦ 特徵: 이 期間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선 안되며 빨래를 해서도 안된다. 만약 빨래를 하여 물을 먹이면 구더기가 인다고 한다. 영등할망은 牛國 또는 大唐에서 由來했다는 外來神이며 寒暖 風雨 등의 氣象과 관계 깊은 神이다.

⑧ 祭場: 밀물이 막 되는 순간, 돛대뒤통산'에 있는 '일렛당'에서 行한다.

2) 줍수굿

줍수굿은 2~3년에 한번씩 9·10·11월에 擇日하여 行한다. 祭場은 바닷가이며 祭神은 龍王이다. 이 굿에서는 '용왕맞이'도 같이 行한다. 이 굿은 매우 큰 굿이며 祭順은 영등굿과 大同하고 海女採取物의 豐登과 作業의 安全을 祈願하는 것이다. 이 굿에서는 '씨드리기'·'씨점' 등이 있어 異彩롭다. '씨드리기'란 老潛嫂(老海女) 5~6명이 줍씨를 바다에 뿌리는 것인데, 이것은 소라·전복·미역 등 海女採取物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리고 '씨점'이란 '씨드리기'를 한 후, 심방이 돛자리 위에 줍씨를 뿌리고 그 줍씨가 흩어진 밀도를 보아 성진 쪽의 方位엔 전복·미역 등이 凶年 들고, 뻥뻥한 곳의 方位엔 豐年이 든다는 占法이다. 또 계란껍질에 참기름을 넣어 불을 켜서 바다에 띄워 보낸다.

3) 말축고사

'말축'이란 메뚜기의 方言으로 '말축굿'은 없고 '말축고사'가 있다. 메뚜기의 번식으로 農作物에 주는 虫害를 막기 위한 것으로, 祭酒·메를 차려 놓고 도를 더놓아 (밭 돌담을 헐어 出入口를 만드는 것) 징을 치며 소리를 내어 메뚜기를 몰아내는 것을 말한다.

4) 당과 당굿

吾照里의 堂은 本鄉堂인 '울렛당'과 부락당인 '일렛당' 두 가지가 있다. '울렛당'은 城山面 水山里에 있어 흔히 '하로산울렛당'이라 한다. '일렛당'은 吾照里內에 있고, 흔히 '죽지일렛당'이라고 하며, 船舶, 海女保護와 子女育成을 도와 준다고 믿고 있다. '울렛당'에서는 굿을 하는데 굿의 절차는 앞에서 記述한 영등굿의 절차와 同一하다. 祭物은 '돌래떡'을 쓰거나, 혹은 떡이 없고 산메 1器와 바닷고기·계란·쇠고기 따위이고, 돼지고기는 올리지도 않으며, 굿하기 前 7日間은 肉食을 禁한다. 그리고 백지가 必要하다. 祭日은 7月 8日, '마풀림'(조상이 전부 나와서 마를 푸는 것), 1月 2日 新過歲祭, 11月 14日 '새마술'(곡식)을 바치는 것 등이다. 심방은 '당맨심방'이라 하여 이 당에 전속하여 굿을 하는 이가 있는데, 그

姓氏는 高氏로서 世襲制이고 現在는 남자 심방이 맡고 있다. 信徒數는 약 30戶로 90명 내외이다. '일뤼당'은 '울뤼당'에서 갈려 나온 것이므로 이곳에 다니면 풍년이 든다고 하며, 神名은 '일뤼할망' 또는 '족지할망'이라 한다. 祭日은 每 7日마다인데 7日, 17日, 27日 그중 어느 날에 祭를 지내어도 좋다. 祭物로는 새 곡식으로 만든 떡들, '오메기' · '돌래떡' · '산디떡'과 메 1器이며 돼지고기를 허용한다는게 특이하다. 이 돼지고기는 용왕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채소는 안 올리고 술 · 과일 · 백지 · 쌀과 실은 특별한 경우에만 올린다고 한다. 굿을 하는 경우는 없고 개인적으로 심방을 모시고 가서 빈다. 현재 吾照里內에는 심방이 없으므로 수산리에 가서 빌어 온다고 한다.

Ⅲ. 家庭信仰 및 祖上崇拜 其他

1. 家庭神과 그 儀禮

吾照里內 各 家戶의 울타리 안의 諸神들 중 그 儀禮의 對象으로 重視되는 것은 '문전' · '조왕' · '토신' · '안칠성' · '밧칠성'이고 그 儀禮의 機會는 심방 또는 중을 빌어서 單獨祭로서 行하는 경우와 祖上崇拜의 名節, 祭祀 때 겸사하여 行하는 경우가 있다. 前者의 경우로 주요한 것에 '조왕제' · '칠갈이' · '토신제'가 있다.

1) 조 왕 제

- ① 祭神: 竈神인 '조왕'을 주로 위하는 것이지만 이때에 門神인 '문전'이나 '안칠성' · '밧칠성'에게도 그 儀禮를 한다.
- ② 祭日: 陰 正月初에 吉日을 擇하여 行한다.
- ③ 祭場: 집 울타리내에 있는 家內에 祭壇을 차려 한다.
- ④ 祭官: 심방을 빌어서 巫式으로 하기도 하고 중을 빌어다 佛教式으로 하기도 한다. 또는 동네의 有識한 이를 빌어서 祝文을 告하여 儒式儀禮로 하는 집도 있다. 그러나 現在는 佛教式이 대부분이다.
- ⑤ 性格: 竈神을 主神으로 하여 家內의 諸神에게 新年의 家內安泰를 비는 新年祭로서 主婦가 주관하여 行하는 것으로 보아 女子의 家庭信仰이라

하겠다.

2) 칠 갈 이

① 祭名: '칠갈이'는 一名 '문전칠갈이' 또는 '뱃롱갱이'·'문전비들개기'라고도 한다.

② 祭日: 대개 正月에 심방을 빌어서 한다.

③ 祭場: '문전'神을 主神으로 삼아 新年의 家內安泰를 빌고 이어서 '조왕'·'안칠성'·'뱃칠성' 등 家內諸神에게 祈願한다.

④ 祭場: 家內에서 치루며, 이날 집뒤에 '뱃칠성'을 모셔놓은 '칠성눌'을 갈아 덮기도 한다. '칠성눌'은 집뒤 空地에 '주쟁이'(난가리 위에 비가 새어 들지 않게 떠로 엮어 덮는 것)를 덮어 놓은 것인데, 이 안에는 기와 2장이 겹쳐 있고 그 안에는 조·콩·팥·옥수수 등 雜穀과 소라껍질이 들어 있다. 또한 기와 대신 항아리로 하는 곳도 있다.

⑤ 性格: 칠갈이 때는 '뱃칠성'에게 儀禮를 하고 이 기와 속에 잡곡과 소라껍질을 갈아 넣고 '주쟁이'를 새것으로 갈아 덮는 것이다.

⑥ 祭物: 家門마다 각각 다르다. 特히 魚類 곧 명태·생선 따위를 많이 올린다. 따라서 보통 祭祀와 유사하다.

3) 土 神 祭

① 祭神: 土地之神位이니 祭를 지낼 때 土地之神位라는 紙榜을 써 붙여 놓는다. 그리고 家門의 平安을 祈願하는 것이다.

② 祭日: 陰 正月 初旬에 擇日하여 子時에 行한다.

④ 祭物: 백미메 2器, 좁쌀메 2器, 닭 1마리, 脯(쇠고기) 1器, 五果, 魚需 1器, 菁菹·芹菹 各 1器, 술, 幣帛, 무명 1필 등이다.

⑤ 祭官: 男主人이 呪文을 쓰고 告할 줄 알면 本人대로 하고, 할 줄 모르면 呪文을 쓰고 告할 줄 아는 마을의 男子를 빌어 치룬다.

⑥ 行祭: 子時가 되면, 祭官이 儒敎式 祭法으로 行祭하며 拜禮는 直拜를 한다.

⑦ 性格: 祭日 3日 前에 '올래'(거릿길에서 마당까지 이어지는 집의 出入路)에 금줄을 매어, 不淨人의 出入을 禁하고 祭日 밤이 되면 그 禁줄을 푼다. 禁줄을 계속 매어 두면 神이 못들어온다고 한다. 儒式 祭法의 新年 家祭로서 男性의 家庭信仰이다.

2. 崇 祖 祭

祖上崇拜에는 첫째 陰 1月 1日의 '정월명절'(正月名節), 3月의 寒食, 5月 5日의 端午, 8月 15日의 秋夕을 하는 節祭가 있으니, 長孫을 基準으로 하여 高祖父母까지 모시는 것이 一般이나 曾祖父母까지 모시는 집안도 있다. 따라서 一般的인 것만 살펴 보겠다.

名節 때나 祭祀때나 '문상' · '큰상'(몸상) · '안상' 셋을 차린다. '문상'은 門神인 '門前'에 대한 祭床이며 '안상'은 '고팡'(庫房)의 '안칠성'에 대한 祭床이며, '큰상'은 先祖에 대한 祭床이다. '문상'이나 '안상'은 작은 상에 차린다. 祭次는 먼저 本祭前에 門前祭부터 지낸다. 문상을 '삼방'(마루방)의 바깥문쪽에 갖다 놓고 單獻單爵으로 지낸다. 吾照里內에서는 특히 門前祭에 '갱'(羹)을 올리는 가문이 대부분이다. 끝난 후 그 상을 부엌으로 옮기면 거기의 祭物을 조금씩 잡식(各祭物을 조금씩 떠 모으는 일)하여 그것을 부엌의 '조왕신'에게 던진다. '조왕'에 대한 告祀인 것이다. 그런 후 三獻이 서서 先祖에 대한 祭祀 '本祭'를 지내고, 그후 '안상'을 가져다 놓아 主婦가 祭를 지낸다. 그리고 모든 祭祀가 끝난 후에 門入口에서 바가지에 모든 祭物을 잡식하여 부어 버리는 '박송늑'을 한다. 모든 祭에 祭酒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3. 쇠 멧 질

各 家戶單位로 하는 儀禮에 '쇠멧질' 또는 '쇠제사'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吾照里內에서는 漁村이라 많지는 않다. '쇠접'이라 하여 契의 일종으로서 하루씩 교대로 소를 감독하는 制度가 있는데, '쇠멧질'은 이 契員들이 소의 安泰와 增殖을 비는 儀禮이다. 祭日은 7月 14日 百中날 밤 子正이며 祭場은 部落 近處 自己 소가 잘 노는 곳이다.

과거에는 목동을 시켜 치뤘는데 지금은 목동이 없으므로 主人男子가 하고 있다. 祭物은 메 1器 · 돌래떡 · 海魚 · 술 등이며 이 祭物을 가지고 祭場에 가서 陳設하고 술을 부어 올려 숟가락을 메에 꽂아 두었다가 '잡식'해서 땅에 붓는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데, 이때 쓰인 음식은 남겨서 집에 가져 오지 않는다고 한다.

觀 光

目 次

- Ⅱ. 概 觀
- Ⅱ. 開發 및 發掘할 價値가 있는 資源
 - 1. 自然 資源
 - 2. 人工 資源
 - 3. 基本 施設
- Ⅲ. 結 論

I. 概 觀

濟州市에서 버스를 타고 東쪽으로 한 시간 남짓 달리면 北濟州郡의 마지막 마을인 종달리가 있고, 여기서 한 5분쯤 더 달리면 車窓으로 특트인 바닷가에 奇岩으로 된 城山日出峰이 보인다.

城山日出峰에 精神을 빼앗기노라면 바다 가운데 숲으로 덮여 있는 섬이 視野에 들어온다. 이것이 食山峰이며 그 앞에 平和스럽게 보이는 마을이 城山面 吾照里인 것이다.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約 300年前에 形成되었다고 하며 지금은 244家口에 1,259名이 살고 있다. 半農半漁인 이 마을은 豊富한 水産資源과 耕作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볼 수 없는 風致를 지닌 食山

峰, 湖水에 저 혼자 서 있는 錯覺을 일으키게 하는 海岸, 언제 들어도 잊지 않은 수 많은 傳說들이 이 마을의 歷史를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

大都市가 形成됨에 따라 꼭 들어선 産業施設, 신선한 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빌딩群, 폭발될 것 같은 人口, 反復되는 日常生活 등에서 단 하루라도 脫皮하고 싶어 누구나 할 것 없이 大自然이나 寺刹, 公園, 古宮과 같은 곳을 찾는다. 특히 70年代에 들어서면서 週末과 같은 때에는 몇몇 유명한 寺刹이나 自然에 물리므로 해서 自然의 壞損, 交通의 混雜 등과 같은 問題를 惹起시키는 것이다.

自然은 우리들만이 享有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 子孫萬代에 물려줄 財産인 것이다. 現在 濟州道の 유명한 觀光地들은 어떠한가? 工場の 弊水로 물이 汚染되어 瀑布에 무지개가 사라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惡臭이 풍기고 있다는 正房瀑布, 무태장어가 滅種의 危機로 몰아 넣어지고 있는 天池淵瀑布, 하늘을 가리던 숲과 明鏡止水를 자랑하던 龍淵은 온데 간데 없고 汚染된 물과 황폐된 두서너 그루의 나무뿐이 아닌가? 이 두세 가지 경우만 보더라도 濟州道 곳곳에 있는 觀光資源이 産業開發이라는 目的 아래 水質이 汚染되고 資源이 壞損, 또는 破壞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自然保護를 위해서는 産業弊水를 철저히 處理하고 開發이라는 名目 아래 自然을 壞損시키는 일을 없애며 觀光地內에서 觀光客의 心理를 利用한 自然壞損, 採取 등을 防止하기 위하여 一流觀光地인 경우는 '즐기는 觀光'에서 '보는 觀光'으로 바꾸도록 行政의 뒷받침이 必要하다.

原來 觀光이라고 하는 것은 '日常生活을 떠나 氣分轉換을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氣分轉換을 하는 方法으로는 慰安·休養·鑑賞·享樂·社交·體育·見學·視察 등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動的인 것으로 보아 觀光하면 유명한 觀光地를 觀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며 重要的 것은 보거나 鑑賞하는 靜的인 觀光보다는 스스로 行動하는 動的인 觀光이 主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一流의 景勝地를 保存, 保護하기 위하여 一流의 景勝地는 못되지만 自然資源이 많고 地域的으로 넓은 곳을 擇하여 開發을 한다면 氣分轉換(recreation)의 場으로서의 價値가 있다고 본다.

30餘種의 樹木을 갖고 있는 南郡保護林인 동시에 風致林인 食山峰, 그 周圍의 넓은 海邊, 食山峰을 中心으로 한 수 많은 傳說, 直徑의 海岸距離는 約 1.5km 程度 밖에는 안되지만 넓이가 8萬坪 정도나 되는 養漁場은 水深이 얇아 조개와 소라 등을 養殖하기에 좋고 또한 이 養漁場에는 사시사철 철새가 날아오며 특히 겨울에는 황새와 고니같은 稀貴鳥도 날아온다.

地形的으로 볼 때는 東쪽에는 天下의 絶景을 자랑하는 日出峰이 있고, 東北쪽으로는 濟州道에서 東쪽끝인 牛島가 있다. 이렇게 位置가 좋고 自然環境이 豊富한 곳을 開發한다면 觀光客이 한 장소에서 山을 볼 수 있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綜合的인 recreation 適地로써 活用될 수 있을 뿐더러, 開發에 따른 投資效果와 雇傭效果가 클 것이니, 이 地域住民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못 크리라고 생각한다.

本報告書에서는 開發 및 發掘할 價値가 있는 資源으로서 自然資源과 人工資源을 살피고, 吾照里의 實態를 알아보기 위해 基盤施設을 說明하고 이러한 것을 토대로 開發方向을 모색코자 한다.

Ⅱ. 開發 및 發掘할 價値가 있는 資源

여기에서 資源이라는 말은 原來의 뜻인 地下資源이라는 말과는 違異가 다른, 觀光對象으로 삼을 수 있으며 또한 保存, 保護하지 않으면 耗盡되고 감소되는 資源을 말한다. 觀光學에서 觀光資源은 일반적으로 自然資源과 人工資源으로 나누어지는데 自然資源이라고 하는 것은 自然이 만들어 낸 有形, 無形의 全部가 될 수 있으며 예를 들면 山岳·平原·海岸·島嶼·河川·湖沼·溪谷·瀑布·地質·氣象·溫泉·動植物과 같은 것을 말한다.

人工資源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歷史와 傳統에 의해 形成된 것으로서 文化財·風俗·住宅模型·國民生活의 全體·習慣·人情 등을 말한다.

1. 自然資源

吾照里에 있는 自然資源으로서 30여종의 亞熱帶性 樹木이 있고 수 많은 傳說을 간직한 食山峰과, 이 마을의 約 2/3家口의 活動舞臺인 넓은 漁場 및 養殖場을 포함하는 海岸으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 食山峰은 吾照里 마을에서 東北쪽으로 約 5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山이며 이 산은 높이가 45m쯤 되고 바다와 直面하고 있으며 울창한 나무들로 덮여 있는 南濟州郡 保護林인 동시에 風致林인 것이다. 이 산은 소나무와 대나무가 주를 이루며 참나무·삼나무·보리수·가마귀쪽나무·동백나무를 비롯한 30여종의 樹木으로 우거져 있다.

設問紙를 통해 ‘觀光客에게 吾照里를 보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라

고 調査를 하여 본 결과, 대부분이 食山峰과 養漁場을 들고 있다. 그 理由는 風致가 좋고 거기에다가 里民이면 누구나가 한마디쯤은 던질 수 있는 傳說이 있기 때문이다. 食山峰에는 壬辰倭亂 당시 왜놈들이 吾照里 浦口로 侵入을 하려 할 때, 趙助防將이라고 하는 사람이 賊을 물리치기 위하여 食山峰에다가 '늑탐지'(질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위를 덮는 이엉)를 덮어 軍糧米인 것처럼 가장시킴으로써 倭軍의 士氣를 떨어뜨려서 스스로 물러가게 했다는 傳說과 함께 다음 이야기도 흥미있게 傳承된다.

“食山峰 西쪽에 넓은 平原이 있다. 이곳에는 300여년 전까지만 해도 안카름(安加里)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에 夫씨의 성을 가진 남편과 玉女라고 하는 아내가 아주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자 남편을 묻을 만한 곳이 없어 머리를 풀고 그 像을 追慕하다가 부인도 역시 죽었다고 한다. 食山峰 南쪽에 있는 雙月(장시머들·진동산)은 남편이 죽어 있는 形體라고 하며, 南쪽으로 약간 굽어 있고 北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形態를 한 食山峰은 머리를 풀고 痛哭하는 부인의 形體라고 한다.”

여기서 나온 말이 玉女散髮形이다. 그래서 전해 오는 말로 吾照里 주위 어디엔가는 名山이 있을거라는 風水地理說이 나돌며 남편을 묻을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울고 있는 형태이므로 吾照里에는 寡婦가 많다고도 한다. 그렇지만 마을 여인들은 貞節을 지키고 再嫁를 안한다고 한다. 이렇게 風致가 좋고 애뜻한 傳說이 담겨져 있는 이 산주위에는 西쪽으로 300여년전에 마을이 있었다고 하는 ‘안카름’, 軍人들이 駐屯했었다는 ‘백문동산’(兵問童山), 軍用水로 사용했었다는 ‘주군뒤물’(駐軍後水), ‘도새기틀레’(都色田), ‘중귀미돌래’(僧衿田), ‘절터’(寺跡) 등의 地域이 있으며, 南쪽에는 달이 뜰 때면 하늘의 달과 바다에 비치는 두개의 달을 볼 수 있다는 雙月 등과 같은 自然資源이 있다.

둘째, 吾照里 海岸은 東쪽으로 城山里와 西쪽으로는 始興里에 접해 있고 그 사이에 食山峰을 끼고 넓은 浦口와 牛島 앞에 이르는 第一種漁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海岸의 特色으로는 ① 浦口가 吾照里 養漁場, 城山水高 養漁場, 城山港, 吾照里港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하나의 湖水처럼 보인다는 점과 ② 水深이 얕아서 조개를 포함한 소라·전복·해초류 등을 養殖하기에 아주 좋으며 ④ 養漁場과 濕地 등으로 構成되어 있어 稀貴한 철새들의 훌륭한 通過, 寄着地가 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海岸은 吾照里의 總收入의 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아주 중요한

場所가 되고 있다. 여기에서 生産되는 水産物로는 海女들이 收入을 올리는 소라·전복·해삼·문어·미역·천초·돛·감태 등과 비료의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뽕묵, 어부들이 수입을 올리는 옥돔·조기·장어·뽕레기·솔메기 등과 養魚場의 수입으로 뱀장어·숭어·농어·조개·낙지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浦口는 深度가 낮아 조개 養殖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또한 이 포구는 吾照里 漁村契 養魚場(面積 8萬坪)에 비해 그 크기가 10배 정도이니 80~100萬坪 정도나 되며, 濕地가 넓으므로 황새를 비롯하여 고니·흑로·쇠백로·외가리·쇠가마우리·재두루미·물오리·팽이갈매기·붉은왜가리와 같은 稀貴鳥가 越冬하는 훌륭한 通過, 寄着地가 되고 있다. 새들도 언제나 그 자리를 보아 둥우리를 짓는 법이니, 이 浦口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요한가를 대변해 주는 것 같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 吾照里 海岸에 서면 東·西·南쪽에 끝없이 잔잔한 물결, 고기잡이 나가는 조각배, 배 위를 날으는 갈매기 등에 마음의 故鄉을 찾은 듯 하며, 北쪽을 바라보면 亞熱帶植物이 무성한 食山峰이 보여 仙의 境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게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찾아 볼 수 없는 自然의 造化일 것이다.

2. 人 工 資 源

吾照里의 人工資源은 마을이 생긴 이후, 지금까지 考案되고 전해 내려오는 衣食住·民具·生活方式·年中行事·傳説·埋藏文化財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의식주에 있어서는 優級 漁村인 이 마을은 새마을 운동에 힘입어 文化生活을 하다 보니 現代의 物質文明 속에서 過去의 傳統的인 衣食住 形態는 거의 없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주도의 순수한 形態를 갖춘 초가집, 開發하면 觀光商品이 될 수 있는 ‘강정’·‘메밀만두’·‘지지미’·‘상외떡’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메밀만두’는 이 마을 고유의 떡이며 떡본의 크기에 따라 만두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하며 속에 집어 넣는 소의 종류에 따라 ‘메밀무우만두’·‘메밀팥만두’ 등이 된다고 한다.

民具에는 半農半漁의 이 마을인 경우는 農機具·漁具 그리고 生活必需具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농기구에는 ‘지게’·‘멜랑탱이’·‘잠대’·‘호랭이’·‘곰배’·‘당그네’ 등을 들 수 있으며, 어구로는 ‘조락’·‘성제호랭이’·‘붓돌’·‘터우’·‘싸움판배’ 등이 있으며, 생활기구에는 ‘돌춧대’·

‘무담’ · ‘안반’ · ‘허벅’ · ‘멧돌’ · ‘돌화리’ · ‘막계’ · ‘고리짜’ · ‘우장’ · ‘반둠’ 등이 있다.

生活樣式에 있어서는 濟州道の 自然村落들이 거의 다 그렇듯이 聚落形態가 매우 밀집되어 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댕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 주고 조그마한 음식이라도 나누어 먹는 人情있는 삶을 하고 있으며, 남편만이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들도 남편 못지 않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年中行事로는 정월보름 · 오월단오 · 팔월한가위 때에는 食山峰 꼭대기에 서 씨름을 했다고 하며, 이 마을은 漁村이므로 漁夫, 海女の 海上漁業을 守護해 주기를 祈願하는 ‘영등계’와 龍王神에게 海女 採取物의 豐盛과 作業의 安全을 祈願하는 ‘잠수굿’, 마을의 安寧과 五穀의 豐盛을 바라는 ‘마을제’ 등이 있다고 한다.

傳說로는 ‘짐수막’ · ‘천기왓’ · ‘절터’ · ‘모살동산’ · ‘수전밭’ · ‘백문동산’ · ‘관집터’ · ‘소금막’ · ‘당난밭’ · ‘중귀미돌래’ · ‘객주리덜래’ · ‘장시머들’ · ‘밭채동산’ · ‘주군뒤물’ · ‘송난코지’ · ‘불미술’ 등의 地名이 생기게 된 유래와 ‘夫大角傳說’ · ‘조방장 전설’ · ‘玉女 散髮形’ 등의 民譚을 들 수 있다. 이중에 몇 가지 경우를 보면, 高麗時代에 亂을 피하여 도망온 金通精을 잡으려고 金水將軍이 陣을 쳤던 곳이라고 해서 ‘金水幕’이라고 했고, 푸른 기와를 굽던 곳이라 해서 ‘청기왓’, 僧의 옷을 보관하던 곳이라 해서 ‘중귀미돌래’(僧衿田), 宋나라 군대가 亂을 일으켰다고 해서 ‘송난코지’(宋亂串)라는 地名의 由來가 傳承된다. ‘夫大角傳說’은 650여 년 전 夫氏家門에 夫大角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혔고 氣骨이 壯大하여 자랄수록 힘이 거세었다. 불기를 세번 치면 사라져서 한시간 정도에 濟州市를 왔다 갈 程度로 鬼神같이 빠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사람은 逆賊이라 해서 조정에서 잡아 죽이던 때였다. 이러한 事實을 안 夫大角의 父母는 夫大角이 잠자는 사이에 인두로 날개를 지저 버렸다고 한다. 그러자 차츰 힘이 없어지면서 말라 죽었다고 하는데 날개를 지저 버리자 그 동네에 있던 怪石에 피가 흘렀다고 하는 내용의 傳說이다.

埋藏文化財로서는 기왓장 · 석관 · 도자기 등이 發掘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마을의 歷史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말해주는 것 같고, ‘모살동산’에서의 집단적인 骸骨의 발굴은 海溢과 같은 天災地變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며, 人體가 보통 사람보다 큰 것으로 볼 때 考古學的 資料가

될 것 같다.

3. 基 本 施 設

半農半漁인 이 마을에 대하여 그 構造的인 면에서 살펴보자. 곧 家口 및 人口狀況, 土地 및 家畜狀況, 漁場 및 漁船狀況, 文化施設, 共同施設 등으로 分類하고 事業的인 면에서 所得増大事業, 生産基盤事業, 環境改善事業 등을 概觀하기로 한다. 첫째, 이 마을의 家口 및 人口狀況은 農家가 82戶, 漁家가 153戶, 非農漁家가 9戶이며 남자가 594名, 여자가 665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둘째, 土地 및 家畜狀況은 耕地가 259.5ha, 柑橘園이 18.8ha, 牧野가 50.1ha로 이루어져 있으며 家畜은 牛가 87頭, 돼지가 244頭, 닭이 59필, 염소가 17마리, 닭이 17마리 등이 있다. 셋째, 漁場 및 漁船, 第一種漁場이 224.6ha, 養殖場이 5ha이며 漁船은 動力船이 6척, 無動力船 5척 있다. 넷째, 文化施設은 라디오와 재봉틀은 대부분이 갖췄으며 이외에 전화·TV·자전거·전축·냉장고·신문 등이 있다. 다섯째, 공동시설로는 會館이 1棟, 창고가 4棟, 사무실이 1棟, 탈의장이 2棟 등이 있다.

事業的인 면에서는 첫째, 所得増大事業으로 천초투석 2ha로써 238萬원을 벌어들이는 것을 비롯하여, 바지락 양식이 5ha, 톳 양식이 2.5ha, 소라 양식이 8ha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生産基盤事業으로는 養魚場이 270m가 완공되었고 진입로 포장이 360m, 防波堤가 90m, 물양장이 80m 등이 있으며, 環境改善事業으로 이루어진 排水路가 170m, 안길포장이 560m, 놀이터가 2,700坪 등이 있다.

이러한 生活基盤을 갖고 있는 이 마을은 戶當 所得이 153萬원이다. 學歷은 無學者가 27% 정도로 매우 낮은 반면, 高卒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민이 40% 정도로 개화된 이 마을은 만약 觀光事業에 共同投資하게 된다면 基金을 기꺼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조사대상자 54名 중 22名으로 40% 이상이나 된다. 이러한 現狀으로 미루어 볼 때, 이 地域은 自然資源과 人工資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地域住民이 呼應度가 높아 開發할 地域으로 는 아주 適格地라고 생각된다.

Ⅲ. 結 論

濟州道の 觀光地를 濟州市와 西歸浦를 연결시켜 볼 때 東쪽에는 萬丈窟

과 城山 日出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觀光地가 西쪽에 몰려 있다. 東쪽 코스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두 곳에서 1~2시간 정도 景致를 구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버스에 얹매일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므로 觀光經濟的 效果에 많은 差跌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觀光客이 원래의 目的인 '氣分轉換'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적합한 recreation場을 開發함으로써 觀光의 效果는 물론, 地域經濟的 效果를 誘發하도록 한다. 濟州市와 적당한 거리에 있고 호수 같이 넓은 浦口, 늘 푸른 食山峰을 비롯하여 사시사철 찾아드는 稀貴鳥와 소라양식 조개양식에 의해 생산되는 海產物, 제1종공동어장에서* 가장 많이 잡힌다는 옥돔 등의 自然條件을 갖춘 吾照里는 觀光開發對象地로서 適格일 것이다. 주민들의 生産程度가 높고, 거의가 학력이 높으며 개발에 따른 人員需給에도 差跌이 없을 것이며, 戶當 所得이 153萬원으로 資本投資가 可能한 이 地域은 基地開發에 적합한 곳이라고 본다.

이 地域의 開發方向을 열거하여 보면

첫째, 산책코스—行政當局에서 城山港에서부터 食山峰 北東쪽을 연결하는 觀光道路를 建設할 計劃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道路가 건설되면 바다를 가로지르는 듯한 멋을 만끽할 수 있는 산책코스로 최적지라고 본다. 그러나 이 도로를 城山에서 城山水高 養魚場을 따라 雙月을 거쳐 食山峰에 이르도록 건설한다면 經費節約은 물론, 한가히 나르는 물새와 고요한 바다, 울창한 食山峰까지 볼 수 있어 最高의 境地에 달하는 코스가 되리라고 본다.

둘째, 自然觀察觀光地—이 地域은 황새를 비롯하여 고니·흑로·쇠백로·왜가리·쇠가마우지·재두루미·물오리·팽이갈매기·붉은왜가리·도요새와 같은 鳥類의 寄着地이므로 이를 保護한다. 城山水高 養魚場, 吾照里 養魚場, 소라養殖場 등은 水深이 얇아 觀察하기에 편리하므로 現在 養殖하는 조개·소라·전복·海藻類와 뱀장어·숭어·농어는 물론, 그외 여러 종류를 養殖하여 自然水族館化하고, 바다에 직면해 있지만 30여종의 수목으로 울창한 南濟州郡 保護林인 동시에 風致林인 食山峰을 觀光用 植物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 하여금 造景을 하게 한다면, 南海의 景勝地인 '오동도'에 못지 않은 景勝地로 될 뿐 아니라 鳥類, 魚類, 亞熱帶 植物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自然觀察觀光地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낚시관광—태평양 물결이 닿는 제주도는 어느 곳이든 낚시터로 부적당한 곳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浦口로부터 牛島 사이에 있

는 第一種共同漁場은 파도가 잔잔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옥돔과 ‘솔레기’ (옥돔의 일종) 등이 많이 있어 ‘덕판배’ · ‘싸움판배’ · ‘더우’ 등을 利用한 낚시를 한다면 無念無想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낚시터가 되리라고 본다.

네째, 요트觀光-浦口가 넓고 잔잔하며 水深이 얕아서 위험성이 없으므로 요트를 이용한 건전한 스포츠를 하거나 나룻배를 利用한 海岸觀光을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 생각된다.

다섯째, 民俗觀光-他地方이나 外國人들은 自然資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生活의 全體 · 風俗 · 習慣 · 人情 등에 흥미를 느끼는데 이곳처럼 傳說이 많고, 遺跡址 내지는 考古學的 價値가 있는 遺物이 發掘되는 地域을 民俗觀光地화한다면, 비교적 순수한 제주도의 삶을 보일 수 있어 觀光客에게 教育的 效果 내지는 社交的 效果가 이루어지고, 이따라서 雇傭機會와 地域經濟 安全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여섯째, 休養觀光地-훌륭한 自然資源의 開發이라는 名目 아래 破壞되고 기름진 옥토가 收用돼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自然資源이라고 하는 것은 經濟만을 갖고는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創造할 수도 없고 옥토는 人類에게 영원한 財産이며 생명선인 것이다. 이곳 雙月을 중심으로 10여만평을 開發한다면 民俗觀光 · 海岸觀光 · 스포츠觀光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본다.

吾照里民의 원하는 점의 하나는 交通問題인데 이 地域이 개발되면 吾照里 입구에서 이곳을 통과하여 城山으로 통하는 觀光道路를 개발하므로 交通問題의 解決은 물론, 地域經濟에 미치는 效果는 지대하리라고 본다.

위와 같이 이 地域에 맞게 開發을 한다면 훌륭한 觀光地가 될 것이다. 관광개발을 할 때는 항상 交通, 宿泊施設 내지는 周圍에 있는 既存 觀光地와 연관시켜 開發하지 않으면 效果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99암봉의 奇岩絶壁으로 된 日出峰과 濟州道의 歷史를 創造한 세 神人이 碧浪國의 세 공주와 혼인을 했던 장소라고 하는 婚姻址와 장차 濟州 第一의 海水浴場으로 각광을 받을 新陽海水浴場과 연결하여 開發한다면 아주 좋은 觀光圈이 形成되리라고 본다.

民 具

目 次

- | | |
|--------------------------------|-----|
| I. 概 | 要 |
| II. 터 | 우 |
| III. 터 | 윗 뇌 |
| IV. 싸 | 움 판 |
| V. 하뇌 · 젓거리 · 치(舵) · 닻가지 · 강다리 | |

I. 概 要

農機具에는 긴낫을 비롯하여 ‘꼴채’ · ‘지게’ · ‘덩드렁막개’ · ‘당그래’ · ‘곰배’ · ‘새치기’ · ‘골각지’ · ‘멜망탱이’ · ‘호랭이’ · ‘잠대’ 등이 유다르며, 생활기구에는 ‘돌춧대’ · ‘부담’ · ‘적굽는 화리’ · ‘서답돔배’(안반) · ‘돌화리’ · ‘고리짜’ · ‘반듬’ · ‘雨裝’ · ‘푸닥막개’ 등이 눈에 띈다. 漁具로는 ‘조락’ · ‘성계호랭이’ · ‘붓돌’ · 水鏡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현재에도 쓰이고 있는 배로는 ‘덕판’ · ‘싸움판’ · ‘터우’가 있었다.

많은 것들 중 특이한 몇가지를 소개해 보면 농기구인 ‘새치기’를 들 수 있다. 이는 참빗 모양의 6개의 빗살을 형성한 부분과 손잡이 모양으로 된 마치 도배하는 풀비 모양으로 되고 있다.

그 크기는 길이가 15cm, 빗너비가 10cm이며, 가운데 자루의 좁은 부분이 5cm이고, 두께가 3cm인 이 '새치기'는 '반돔'이나 '어육 우장' 같은 주요 재료인 새를 고르게 빗질하며 또 지저분한 불순물을 없애 준다.

빗살은 3cm가량의 사이를 두고 있고 빗살의 넓이는 2cm 정도의 살로 되고 있다.

재료는 '사오기'(櫻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견고하여 수명은 장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반돔'은 새를 가지런히 나열하여 만들었는데, 두께는 새를 5겹 정도 덮쳐 놓았고 가로는 1m 세로는 70cm나 된다. '반돔'은 防風防雨用具로 사용되는데, 얼른 불 때에는 우장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비가 올 때 문앞 '낭간'에 비스듬히 세워 비와 바람을 막는 '풍체' 이전의 민구 일종이다.

그리고 오조리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왕국회관에서 서쪽으로 500m되는 발구석에서 石槨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板石 四點을 발견했다. 가로 70cm, 세로가 11cm, 두께가 12cm인 장방형 형태의 蓋石이다. 가로 30cm, 세로 70cm, 두께 12cm되는 것이 세조각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필연코 옆돌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진다. 이것들은 현재 논둑에서 디딤돌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왕국회관 동남쪽 언덕에 두개의 큰 옛무덤이 있음으로 보아 그 주변에서 石槨으로 사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자세한 것은 본격적인 조사연구에 의해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본다.

발동선이 나오기 이전 제주의 배의 역사를 보면 '터우'·'덕판'·'싸움판'으로 발전되어 왔을 것으로 보고 세가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터 우

'터우'는 海藻類 곧 미역·감태·뽕복 등을 채취할 때나 자리를 뜰 때에 사용했는데 '터우'의 수명은 약 40년이며 '터우'를 현 싯가로 추산하면 약 8만원 정도의 제작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터우'는 지름 20cm 정도의 삼나무를 통째로 10-12개를 '장세'와 '장세틀'을 씌이나 '신사라'(新西蘭)끈을 사용하여 단단하게 엮어 매어서 뗏목 형식을 이룬다.

모든 배의 형태 원리와 같이 물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좁게 되어 있다.

‘터우’에는 한 사람의 사공이 필요하고 두 사람이 ‘상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한다. ‘터우’에는 ‘닷돌’이라는 게 있어서 작업중 선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② 덕 판

‘터우’ 다음에 출현한 배로 보이며, ‘싸움판’과 거의 비슷한 것인데 앞부분이 ‘싸움판’과 같이 뾰족하지 않고 그렇다고 ‘터우’와 같이 뒷부분과 거의 같지 않을 정도로 위에서 보면 사다리꼴 모양에다 옆으로 판자가 둘러쳐져 있다. 수명은 약 30년 정도이다.

③ 싸움판

‘싸움판’은 요즘 흔히 보는 배인데, 고기를 잡으러 갈 때나 海女作業時 또는 海女를 수송할 때 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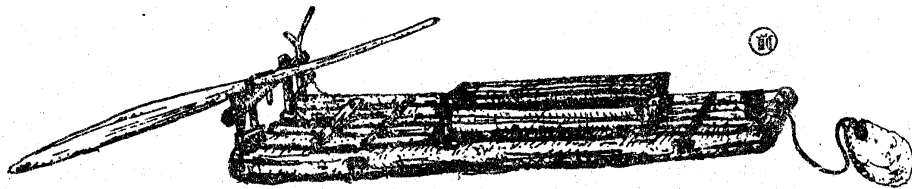
수명은 약 30년 정도이고 배의 값은 현 시가로 계산해서 30만원 정도이고 무게는 2톤이 보통이다. 선체는 가늘고 ‘소’(물쭈)가 잘 슬지 않는 삼나무를 사용해서 만든다.

‘싸움판’에는 3개의 노로 船體를 움직이는데 방향을 조정하는 길이 5m 정도가 되는 ‘하뇌’와 배의 뒷부분에서 배를 전진시키는 ‘젓거리’가 있다.

‘키’는 싸움판에 돛을 달았을 때 ‘치통무늬’에 꼽아서 방향을 잡는다. 그리고 싸움판에는 2개의 돛을 달 수 있다.

이제 ‘터우’와 ‘싸움판’에 대한 조사기록을 구체화해 보기로 한다.

Ⅱ. 터 우



가) 이름: ‘터우’ 혹은 ‘테우’라고 불리운다.

나) 형태: 긴 통나무 10~12개를 편편하게 엮어매어 바닥을 만드는데, ‘앞명에’ 뒤와 ‘뒷명에’ 앞에는 ‘장세’와 ‘장세틀’을 칠판글로 엮어 고정시키고, 중간중간에는 ‘장세’와 ‘장세틀’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무를

꺾어서 고정시킨다.

바닥은 앞쪽이 뒤쪽보다 좁게 되어 있어 '터우'가 바다에 나갈 때 물살의 저항을 덜 받도록 만들어져 있다. '앞명애'는 바닥과 붙어 있으며 '뒷명애'는 '명애새'를 중간으로 들려져 있다. 그리고 '뒷명애'의 양옆에는 '강다리'가 하나씩 꽃혀져 있다.

바닥 중간에는 4개의 '상자리명애새'(혹은 '상자리 받침')을 꽃고 그 위에 대나무로 얹어맨 '상자리'가 놓여 있어 그 위에 앉아서 작업을 한다. 터우의 길이는 15척이 된다.

다) 쓰임 : 해조류, 즉 '미역' · '감태' · '듬북' 등을 따올 때나 '자리'를 잡을 때에 쓰인다. '터우'에서 작업하는 인원은 3명인데, 한 사람은 사공으로서 노를 젓고 두 사람은 '상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한다.

라) 수명 : 부분품은 가끔 갈아 끼우는데 주로 전체적인 수명은 약 40년 정도이다.

마) 값 : 현 시가로 계산하면 8만원 정도이다.

바) 재료 : '삼나무'(혹은 '수기 나무') 통나무를 10~12개 쓰고 '상자리'의 재료는 '대나무'이며, 그외 '장세' · '장세틀' · '강다리' 등은 소나무를 쓴다. 그리고 '장세' · '장세틀'을 고정시키는 줄은 칩명줄을 사용한다.

사) 부분 명칭

- ① 닻줄 : '터우'를 정박시킬 때 쓰는 줄.
- ② 닻장 : '닻줄'을 매는 곳으로 '앞명애'의 뒤에 세워져 있다.
- ③ 앞명애 : '터우'의 맨 앞에 가로로 바닥에 고정되어 있다. 이 '앞명애'에는 '명애새' 3개가 꽃혀져 '앞명애'를 고정시키고 있다.
- ④ 닻돌 : 선체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 '닻돌'은 칩(혹은 '꺾'이라고도 한다)을 두 줄로 꼬은 '닻돌줄'에 매어졌으며 '닻돌'을 맨 '닻돌줄'은 '닻장'에 매어 놓는다.
- ⑤ 장세 : '터우' 바닥의 아랫부분(물에 닿는 부분)에 있어서 바닥 위에 있는 '장세틀'과 '몸체'(즉 '터우'바닥)를 사이에 두고 매어 있어 '터우'바닥인 통나무들을 고정시킨다.
- ⑥ 장세틀 : '터우' 몸체의 윗부분에서 '장세'와 엮어져 몸체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⑦ 상자리 받침 : '상자리 명애새'라고도 하는데, '상자리'를 받쳐 주는 역할을 하는데 4군데에 '상자리'를 받쳐 준다.

- ⑧ 상자리 : '대나무'를 엮어 만들며 여기 앉아 작업을 한다.
- ⑨ 뒷멍에 : '터우'의 맨뒷부분에 있는데 이것은 4개의 '뒷멍에틀'로 고정되어 있으며 양쪽에는 '강다리'가 꽂혀져 있다.
- ⑩ 뒷멍에틀 : '뒷멍에'를 몸체에 고정시킨다.
- ⑪ 강다리 : 작업을 하다가 추우면 불을 때어 쪼일 수 있도록 화목(火木)을 넣어두는 곳으로 '뒷멍에'의 양옆에 꽂혀 있다.

Ⅲ. 터 윗 뇌

- 가) 이름 : '터윗뇌' 또는 '테윗뇌'라고 부른다.
- 나) 쓰임 : '터우'를 저어 갈 때 쓰는 櫓이다.
- 다) 수명 : '넛조록'은 2년마다 한 번씩 갈아 끼우고 '넛넙'은 약 10년간 쓴다.
- 라) 형태 : 숟가락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노를 저을 때 손잡이가 되는 밑부분이 약간 구부정한 '넛조록'에 물결을 헤치는 끝이 둥그스름하게 뾰족하면서 전체는 납작하면서 둥그스름하고 길게 내어진 '넛넙'을 장세로 연결되어 있다.
- 마) 값 : 현 시가로 계산하면 3천원 정도이다.
- 바) 크기 : '넛조록'이 2개, '넛넙'이 약 2m로 전체의 길이는 4m 정도가 된다.
- 사) 재료 : '넛조록'은 잡목을 쓰는데 주로 소나무이며, '넛넙'은 '가시낭'(가시나무)을 사용한다. '넛조록'과 '넛넙'은 '장쇠'라는 '가시낭'으로 된 나무못으로 연결되어 있다.

Ⅳ. 싸 움 판

- 가) 이름 : '싸움판'이라고 하는데, 확인할 길은 없으나 옛날 일본에서 싸움을 할 때 썼던 배의 모형이어서 '싸움판'이라 명명하였다고 전한다.
- 나) 형태 : '터우' 다음으로 나왔던 '덕판'이란 배의 형은 앞이 뾰족하지 않고 뒷부분보다 좁게만 되어 있었으나, '덕판' 다음으로 나온 '싸움판'은 물결의 저항을 가장 적게 받도록 끝 뱃머리가 뾰족하게 되어 있다.

‘싸움판’은 세계의 노를 갖고 있으며 배의 날개라 할 수 있는 ‘파락’이 있어서 파도가 심할 때 배의 유동을 막아주며 돛을 2개 달 수 있다.

다) 쓰임 : 고기를 잡으러 갈 때나 해녀들을 수송하는 데 쓰인다.

라) 수명 : 부분품은 2~3년에 한번씩 갈아 끼우는데, 배 자체의 수명은 약 30년으로 잡는다.

마) 값 : 현 시가로 약 30만원이 든다.

바) 무게 : 보통 2톤 가량이 된다.

사) 재료 : 선체는 ‘삼나무’로 만드는데 그 이유는 ‘삼나무’가 가볍고 또한 바닷물에 질기기 때문이며 바다의 좁이라고 하는 ‘소’에도 잘 슬지 않기 때문이다.

아) 부분 명칭

① 묘시 : 배의 맨앞의 뾰족한 곳으로 물의 저항을 막아주며 배의 형체를 도와 준다.

② 닻명에 : 배가 항구에 닿았을 때 닻을 매는 곳이다. ‘닻명에’는 ‘묘시’의 바로 뒤에 가로로 놓여 있다.

③ 건걸이 : 잠수했던 해녀들이 추우면 불을 뿜 나무들을 그곳에 넣고 가며 닻같은 것을 걸 수도 있다. 건걸이는 대나무나 소나무를 쓴다.

④ 텃구리 : ‘감판’ 앞에 세워진 것으로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것은 ‘뱃데’를 세우는 곳이다.

⑤ 강다리 : 끝에 가지가 벌어져 있는데 이곳은 ‘뱃데’를 넣는 곳이다.

⑥ 감판 : 배의 앞부분을 차지하며 비가 올 때 잠수들의 옷을 넣어 두거나 몸을 피하기도 한다. 위에 뚜껑이 있고 옆에도 문이 있다.

⑦ 이물장 : ‘싸움판’에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곳으로 ‘이물장’ · ‘한장’ · ‘고물칸’ 등이 있는데, ‘이물장’은 ‘감판’ 바로 뒤에 있는 곳이다. 뚜껑은 4군데 있다.

⑧ 한장 : ‘이물칸’과 ‘고물칸’ 사이에 있다. 뚜껑은 2개 있다.

⑨ 고물칸 : 맨뒷부분에 있고, 뚜껑은 한 군데뿐이다.

⑩ 장부 : 배의 형태 부속으로 물을 막아 주기도 한다.

⑪ 허릿땃궁기 : ‘이물장’과 ‘한장’ 사이의 칸막이 가운데 있는데 돛을 다는 곳이다.

⑫ 명에 : 양쪽에 있는 ‘파락’을 고정시켜 준다.

⑬ 파락 : 배의 양옆에 날개처럼 달려 있는데, 이 ‘파락’의 역할은 배의 큰 유동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며 만일 이 ‘파락’이 없으면 파도가 칠

배 곧 엮어져 버린다. '파락'은 3개의 '파락도지개'가 선체와 고정시켜 준다.

- ⑭ 파락도지개 : '파락'을 선체와 고정시켜 주는 ㄴ字 모양의 것이다.
- ⑮ 고물건걸이 : '치통무니'의 양옆에 있는데 윗쪽에 가지가 벌려 있어서 뒷닻을 고정시킨다. 재료는 소나무이다.
- ⑯ 고물닻거리 : '치통무니'의 한쪽 옆에 하나가 있다. 이것은 고물건걸이와 같은 역할인 뒷닻을 고정하는데 원통 모양이다.
- ⑰ 뇌줄 : '치통무니'의 양옆에 있는 작은 쇠붙이인데 이것은 노를 저을 때 노와 연결하는 곳이다.
- ⑱ 치통무니 : 배의 형태 중 가장 뒤쪽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배의 방향을 좌우한다.
- ⑲ 찢궁기 : '치통무니'에 둥그렇게 파인 곳인데, 이곳은 '치'(舵)를 뽑았을 때 같이 작용하는 곳이다.
- ⑳ 앙그레 : '치통무니' 밑에 ㄴ字 모양으로 양옆에 붙어 있는데 배의 형태 부속이다.
- ㉑ 물밧 : 배의 옆쪽의 판자로 배의 형태를 만들어 준다.
- ㉒ 뱃밧 : 배의 가장 밑을 막아주는 판이다.
- ㉓ 잠수사다리 : 잠수를 할 때 사용하는 사다리이다.
- ㉔ 크기 : 길이는 7.5~8m 이고 배의 넓이는 2.5m 정도이다.

V. 하뇌 · 젓거리 · 치(舵) · 닻가지 · 강다리

가) 하뇌 : '싸움판'에서는 노를 젓는 데가 3군데가 있다. 노도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방향을 좌우하는 노이고, 다른 두개는 배를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 노이다. '하뇌'는 배의 방향을 좌우하는 노로서, 가장 길다.

'하뇌'는 그 길이가 5m 정도가 되는데, 이 '뇌'는 '통무니'에 매어 젓게 된다.

'싸움판'의 '뇌'와 '터우'의 '뇌'와의 차이점은 싸움판의 '뇌'는 '터우'의 '뇌'의 손잡이의 길이가 '넋넋'의 길이와 거의 같은데 비해 손잡이가 아주 짧고 '넋넋'은 매우 긴 게 특징이다.

나) 젓거리 : '젓거리'는 배의 양쪽에서 배를 몰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노의 길이는 4m이다. 이것도 역시 손잡이는 아주 짧다.

다) 치(舵): '치'는 평상시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돛을 달았을 때만 쓰는데 돛을 달았을 때 '치'를 '치통무니' 밑에 달아서 배의 방향을 잡는다.

라) 닻가지: 쇠붙이로 갈고리 비슷하게 된 것으로, 배가 정선할 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마) 강다리: 두다리를 벌린 것 같은 가지를 가진 소나무의 사이에 대나무를 움직일 수 있도록 고정시켜서 만든 것인데 이 '강다리'는 '멜'(멀치)을 잡을 때 쓰이는 것으로 '강다리' 2개를 사용해서 거기에 그물을 연결시켜서 '멜'을 뜬다.

海 女

目 次

- I. 吾照里와 海女
- II. 作業과 採取物
- III. 海女の 出稼
- IV. 海女器具와 收益

I. 吾照里와 海女

吾照里는 도내에서도 海女作業이 비교적 극성스런 마을이다. 꿈에 쇠뿔이나 말뿔 चु는 꿈을 꾸면 전복을 많이 따고, 풀 베는 꿈을 꾸면 미역을 많이 採取한다고 하는데, 吾照里 漁村契 統計에 따르면 1974年 7月 現在 漁業에 從事하는 組合員數가 199名이며, 그중에 海女가 167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男子 組合員의 約 5倍가 되는 數다. 組合에 加入되지 않은 非組合員인 海女도 물론 있다. 吾照里 海女の 作業活動은 男子들을 凌駕한다. 吾照里 住民의 生活은 農業과 漁業에 依存하고 있지만, 漁業에 從事하고 있는 男子의 數가 海女の 5分の 1밖에 안된다는 데서 海女の 비중은 크다. 이들에게는 漁村契會議에서 선출하는 海女會長이 있다. 海女會長의 資格은 40歲 이상의 海女라야 한다.

吾照里 海女들 사이에는 相扶相助 精神이 强하다. 불의의 사고나 喪을 당한 海女の 집안이 貧困할 경우는 마을 全體 海女가 집집에서 쌀 한 되와 광목 한 통씩을 扶助한다. 또한 그릇契가 있어 마을 사람의 結婚 때나 初喪 때 빌려 주어 200원씩 받아서 海女 共同資金으로 貯蓄하고 있다. 年例行事로 1973년부터 團體 濟州道一周旅行을 施行하고 있음은 海女集團에서 特記할 만하다.

15年前까지만 해도 吾照里 海女들은 그들 중 갑자기 病患이 나거나, 採取物이 豐盛하지 않은 해는 '영등굿'을 치렀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에 基督教이 傳播되면서부터 海女들 사이에 信徒가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의 理由로 점점 이 '영등굿'은 없어져 가는 傾向이 있다.

Ⅱ. 作業과 採取物

吾照里 海女들의 裸潛漁場은 始興里와 城山里 사이에 놓였다. 바닷가를 中心으로 한 '갯'은 '장시머들'·'개시왓'·'요지난봉우지'·'안으로필레'·'도리소통'·'한도코지'·'폭진여'·'중드캐'·'점레바위'·'납떼기'·'음수코지'·'당뒤'·'두미여'·'연디미'·'수리덕'·'진모살' 등이 있으며, 바다 가운데 나타난 岩礁를 中心해서는 '안두미여'·'곶게여'·'국장여'·'불락여'·'넙은여'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作業의 中心되는 곳은 '넙은여'이다. '넙은여'는 吾照里 浦口에서 動力船으로 30分이면 갈 수 있는 곳이다.

吾照里 海女の 裸潛漁業 方法은 '갯물질'과 '넙물질'이 있다. 이 가운데 거의 '넙물질'에 쏠리고 있다. '넙물질'을 위주로 하다가 波浪이 심해서 배로 作業場에 갈 수 없는 날은 '갯물질'을 한다. 이곳 海女の 말을 빌리면, '넙물질'과 '갯물질'의 作業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갯물질'은 '떡거리'(반찬) 정도 밖에 안된다. 吾照里에는 '넙물질'을 나갈 때 타고 가는 8톤 정도의 풍선이 5隻 있다. 이 배가 作業場에 갈 때는 1隻에 10~15名の 海女를 싣고 간다. 1隻에 1名の 船主가 타고 있어, 큰 櫓는 船主가 짓고, 작은 櫓는 海女들이 번갈아 저으며 노래를 부르면서 作業場으로 향하는 것이 吾照里 海女들의 모습이다.

吾照里 海女の 作業 始作 年齡은 17~18歲에 쏠리고 있으며, 14歲 때에 始作했다는 海女가 1名이다. (表1 參考)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

<表 1>

吾照里 海女作業始作年齡

作業始作年齡	14	15	16	17	18	19	20	21	22	備 考
人 員	1	3	1	5	5	0	1	1	1	平均年齡 17.4歲

1974年 7月 日 現在

<表 2>

加波島 海女作業始作年齡

作業始作年齡	12	13	14	15	16	17	18	19	20	備 考
人 員	6	0	1	3	0	4	6	0	8	平均年齡 16.7歲

1974年 8月 日 現在

<表 3>

龍水里 海女作業始作年齡

作業始作年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9	備 考
人 員	1	1	0	0	0	0	2	17	0	6	1	1	平均年齡 18.4歲

1973年 12月 日 現在

<表 4>

牛島 海女作業始作年齡

作業始作年齡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備 考
人 員	2	1	1	0	2	14	7	1	6	6	1	平均年齡 15.9歲

1973年 8月 日 現在

<表 5>

大浦里 海女作業始作年齡

作業始作年齡	11	14	15	16	17	18	19	20	備 考
人 員	2	2	1	2	2	5	3	3	平均年齡 16.9歲

1975年 8月 日 現在

그러나 17歲前에 作業을 始作하는 海女가 있어도 이것은 本格的 作業을 하기 위한 準備時期이다. <表2>·<表3>·<表4>·<表5>는 吾照里 海女の 作業始作年齡과 對比할 수 있는 例다. <表2>·<表4>·<表5>의 加波島 海女, 牛島 海女와 大浦里 海女보다 조금 뒤진 점도 있지만, <表3>의 龍水里 海女보다는 앞선다.

吾照里 海女の 月別 平均作業日數를 보면 陰曆 3月~7月 사이에는 作業이 活潑히 進行되고 있고, 8月부터 作業日數가 차츰 줄어드는데(表6 參考) 8月부터 줄어드는 理由는 바쁜 농사철이기 때문이며, 12월에 가서는 겨울철 날씨의 影響 때문이다. 吾照里 海女 全部가 農業을 하면서 裸潛漁業에 從事하고 있고, 보통 밭에 가면 10~12時間의 勞動을 하고 있다. 밭에서 하는 일의 種類는 海女の 집안에서 밭을 갖고 있거나 논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모심기·유채심기·보리심기 등의 일을 한다. <表6>을 通하여 吾照里와 大浦里·牛島·加波島·龍水里의 月別 平均作業日數를 對比할 수 있다. 한결같이 7月の 作業日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表6>

月別 平均作業日數 對比

吾照里·大浦里·牛島·加波島·龍水里

月別 地域	月間 平均 作業 日數				
	吾照里	大浦里	牛島	加波島	龍水里
1	9.6日	13.1日	4.4日	6.5日	4.1日
2	9.6	9.3	6.3	8.6	5.3
3	12.6	8.7	7.3	12.6	13.4
4	16.6	8.5	10.2	14.6	7.8
5	12.3	7.8	12.5	13.5	3.4
6	14.0	10.9	13.7	16.8	8.3
7	17.7	11.6	16.5	16.5	12.1
8	10.6	8.4	15.0	16.5	13.2
9	7.6	5.2	14.0	14.2	5.6
10	7.0	4.3	9.7	12.1	3.1
11	6.3	5.4	4.7	8.7	3.6
12	7.0	8.1	6.6	6.2	0.8

○ 吾照里 海女: 1974年 7月 調査

○ 大浦里 海女: 1975年 8月 調査

○ 牛島 海女: 1973年 8月 調査

○ 加波島 海女: 1974年 8月 調査

○ 龍水里 海女: 1973年 12月 調査

<表 7>

月別 1日平均 潜水回数 對比

吾照里・大浦里・牛島・加波島・龍水里

月 別	回 數 地 域	月 別 1 日 平 均 潜 水 回 數				
		吾 照 里	大 浦 里	牛 島	加 波 島	龍 水 里
1		1.9回	2.4回	1.1回	1.7回	1.2回
2		1.9	2.3	1.2	1.8	1.5
3		2.1	2.4	1.8	2.0	2.4
4		2.4	1.8	2.0	2.3	2.2
5		1.8	2.1	1.9	2.4	0.6
6		1.9	2.1	2.1	2.6	0.8
7		1.7	2.3	2.2	2.8	2.1
8		1.9	1.6	1.9	2.8	2.0
9		1.8	1.4	1.7	2.2	1.4
10		1.8	1.3	1.7	2.1	0.8
11		1.8	1.7	1.3	1.8	1.3
12		1.8	1.9	1.3	1.7	0.3

○ 吾照里 海女: 1974年 7月 調査

○ 大浦里 海女: 1975年 8月 調査

○ 牛島 海女: 1973年 8月 調査

○ 加波島 海女: 1974年 8月 調査

○ 龍水里 海女: 1973年 12月 調査

吾照里 海女の 月別 1日潜水回数 平均은 1回 이상으로 <表 7>을 通해 볼 수 있다. 3月~4월에 들어서 2回 이상이 되는 것은 3月~4月이 미역採取時期이기 때문이다. 3月の 미역 許探의 狀況을 알려 주는 말로 '3月 보름 물질에 사우장각시 서이풀이 메역자리 갈른다' 또는 '3月 보름 물질에 사우장각시 서이풀이 메역자리 갈랑 방상구 간다'라고 海女들 사이에서 傳承된다. 이 말의 뜻은 3月 보름 '물지'에 미역이 많이 난다는 뜻이며 '방상구 간다'란 시장에 미역을 팔러 간다는 뜻이다.

몇해 전만 해도 城山浦 一帶의 漁場은 分割이 되지 않아 그 일대 海女들이 자유로이 作業하고 싶은 場所로 다녔다. 吾照里 海女들은 어느 마을 海女에게 뒤질세라 텅텅한 새벽녘에 '터배'(筏)를 타고 古城里・新陽里 海女들과 함께 共同作業 場所인 '섬지'라는 곳에 먼저 가서 불을 지펴 쪼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린 다음 作業을 하기도 했었다.

作業 도중에 위험한 일에 부딪치는 例도 가끔 있었다. 위험한 일로는 전복을 캐다 일어나는 사고와 무서운 물고기의 出現이다. 바다 속에 '새

우'라는 물고기가 作業 中에 갑자기 나타나서 海女의 살을 뜯어 먹어 버리는 수도 있고, 그 고기가 옆을 스치고 지나치기만 해도 살이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어떤 한 海女는 '새우' 고기를 만나서 한쪽 젓가슴을 잃었다고 한다. 20여년전 시흥리 앞바다에서 作業하다 상어떼가 몰려와서 한 海女를 물어 버린 적도 있다. 이 때는 온 마을 海女들이 屍體를 찾으러 나섰지만 영영 찾지 못했다고 하며 '물웃'만 입고 물속에서 作業하다 보면 '괘주리'같은 고기가 따끔따끔 몸을 물면서 지나쳐 가기도 한다. 전복을 캐려고 '빚창'을 전복 사이에 찌르면 손에 감은 '빚창끈'이 전복 사이에서 빠지지 않아 숨이 막혀 목숨을 잃는 수도 있다. 이럴 때면 무당을 불러 '물굿'을 한다.

이런 위험한 일이 따르는 作業이지만 海女들이 물속에서 作業을 할 때에는 어떡하면 큰 전복을 캐까 하는 데만 精神을 쓴다. 큰 전복이 눈앞에 보일 때에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흥분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表 8>

月 別 採 取 物

吾 照 里

海產物名 時 期	미 역	전 복	해 삼	천 초	청 각	소 라
盛 產 時 期	1~5月	3~4月	10~1月	3~4月	5~8月	3~4月
寡 產 時 期	8月	5~6月	4~9月	8月	10~11月	5~6月

1974年 7月 日 現在

吾照里 海女의 主要한 採取物은 전복·소라·해삼·미역·천초·성게·행초다. (表8 參考) 禁採時期와 許採時期에 따라 採取物이 달라지고 있다. 청각·성게는 禁採時期가 없어 1年 내내 採取하는 採取物이다. <表9>는 採取物의 禁採 및 許採時期를 나타낸 것이다. <表9>에 나타난 바와

<表 9>

採取物의 禁採 및 許採時期

吾 照 里

海產物名	전 복	소 라	미 역	천 초
禁採時期	8月初~9月末	7月初~9月末	12月初~2月末	9月初~3月末
許採時期	10月初	10月初	3月初	4月初

1974年 7月 日 現在

같이 미역·천초·소라·전복은 어느 일정한 時期 동안 禁採했다가 採取하고 있다. 許採日字는 漁村契長·里長·海女會長이 모여서 결정한다. 日字가 결정되면 海女班長이 家家戶戶에 알리고 또한 里事務所 마이크를 통하여 온 마을에 방송한다. 미역 許採날은 집안식구중 15歲 이상 60歲까지 男女老少가 총동원된다. 平常時 作業을 하지 않던 나이 많은 海女까지 온통 作業하러 나선다. 海女들은 배를 타고 ‘뱃물질’을 나서면 나머지 집 식구는 ‘갯’에서 미역을 採取한다. 採取한 미역은 동네 안에 있는 배로 실어 나른다.

미역이라든지 해초를 잘 자라게 하기 위한 ‘바당풀베기’(바다풀베기) 作業을 1년에 1회 한다. 時期는 7月~8月 사이며 5日~7日 동안 계속된다. 이때는 海女가 있는 家庭이면 15歲 이상 家口當 1人이 나와서 作業을 한다.

吾照里 海女들 사이에서 通用되는 採取物의 名稱을 보면 ‘구쟁기’·‘살구쟁기’·‘좁쌀구쟁기’·‘민둥구쟁기’(이상 소라)가 있고, ‘암침복’·‘숫침복’(이상 전복), ‘오븐작’(떡조개), ‘미’(해삼), ‘문계’(문어), ‘천초’(우뚝가사리), ‘물정각’·‘춤정각’(이상 청각), ‘넙메역’·‘밀메역’·‘꼴흠역’(이상 미역)이 있다.

採取物에 따라서 採取方法도 달라진다. 해삼은 밀물일 때에는 돌밑에 있다가 썰물이 되면 돌위에 기어오른다. 그러면 손으로 잡는다. 소라는 돌틈에 끼어 있어서 손으로 잡는다. 전복은 대체로 숫전복은 돌밑에 붙어 있고 암전복은 돌위에 붙어 있는데 모두 ‘빚창’으로 캔다. 미역은 물속에 있는 것을 한손으로 붙잡고 ‘호미’(낚)로 벤다.

Ⅲ. 海女の 出稼

吾照里 海女들은 日帝時代에 日本 對馬島로 많이 出稼했었다. 國內로는 解放後 慶尙南北道·全羅南北道·忠清南道·江原道 地方에 出稼하고 있다. 특히 蔚山에 많이 出稼하는 傾向이 있다.

現 66歲의 ‘오초복老婆’는 連8回나 日本 對馬島에 出稼했던 經驗이 있다고 한다. 21歲 때에 처음 나선 이래 28歲 나던 때까지 해마다 出稼했었다는 것이다. 이때에는 加波島·牛島 사람들과 함께 40~50名씩 한 배에 같이 타고 갔었는데 이 40名 중에는 다섯사람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濟州島部落誌(Ⅲ)

生活했던 적도 있었다 한다. 66歳の '오초복老婆'는 出稼해서 번 돈으로 3백평과 4백평 밭 두 패기를 사기도 했다.

吾照里 海女の 出稼時期는 봄과 여름 사이에 쏠린다. 對馬島는 陰曆 2月 ~3月 中旬 사이에 出稼하여, 陰曆 7月~8月 下旬까지 歸郷한 것으로 나타난다. 國內는 陰曆 2月~3月 中旬에 出稼하여 5月初~9月 사이에 歸郷하고 있다. 對馬島로 出稼했던 때에는 한꺼번에 마을 海女가 13名~100名이 대거 出家했었다. 國內의 出稼는 혼자서 出家하는 海女도 있고, 20名씩 무리를 지어 出家하기도 한다.

出稼地로 향할 때에 對馬島는 여객선과 發動船을 이용하여 갔고, 國內 出稼도 여객선과 發動船을 이용하고 있다. 出稼地에서 作業이 없고 노는 날은 집주인의 農事일을 거들거나 빨래 같은 것을 도와 줘서 방삿을 면제 받기도 한다.

<表10>

出稼始作年齡

吾 照 里

出稼始作年齡	16	17	18	19	20	21	22	23	25	28	31	備考
人 員	1	2	2	3	4	2	2	1	3	1	1	平均年齡 21.2歲

1974年 7月 日 現在 21.2歲

<表11>

出稼始作年齡

島

出稼始作年齡	15	16	17	18	19	20	21	22	23	備考
人 員	2	1	5	61	21	11	5	2	1	平均年齡 18.5歲

1973年 8月 日 現在 18.5歲

<表12>

出稼始作年齡

龍 水 里

出稼始作年齡	14	17	18	19	20	21	22	29	備考
人 員	1	1	9	2	6	2	1	1	平均年齡 19.3歲

1973年 12月 日 現在 19.3歲

南濟州郡 城山邑 吾照里

吾照里 海女の 1973年 出稼數는 全體 海女の 10%, 1974年 出稼海女는 10名으로 吾照里 漁村契 統計에 나타난다. 또한 出稼 平均 年齡은 21.2歲로 <表10>을 通해 알 수 있다. <表11>・<表12>는 牛島와 龍水里 海女の 出稼始作年齡의 平均이다. 1974年 出稼한 吾照里 海女 10名 全部가 21歲~24歲 미만의 未婚女다. 未婚女가 많이 出稼하고 있는 것은 장래의 婚需감을 마련할 費用을 벌기 위해서와 故鄉을 훌훌이 떠나고 싶어 하는 解放感 때문이다. 現在 50歲 前後의 海女들은 日帝時代에 對馬島 地方으로 많이 出稼했었다. <表13>은 國內 出稼回數 平均이다.

<表13>

國內 出稼回數 平均

吾 照 里

出稼回數	1回	2回	3回	4回	5回	6回	7回	10回	備 考
人 員	6	5	4	1	1	1	1	1	平均回數 3回

1974年 7月 日 現在

이들 出稼했던 海女の 出稼地 生活를 들어 본다. 現 27歲의 ‘오빈레海女’는 23歲~25歲에 걸쳐서 3回 완도군 청산에 出稼했었다. 出發하기 전 船主와 미리 採取物을 얼마 가격에 판다는 값을 정해 놓았다. 現地에 가 보니 정한 價格보다 採取物이 비싸지만 할 수 없이 定한 價格 밖에 받지 못했다. 마침 端午를 맞아 船主가 마련한 음식을 가지고 5隻의 배에 海女들을 싣고 바다에 나가서 춤과 노래로 놀다 마을로 돌아와선 마을 사람들과 한테 어울려 놀기도 했다. 이런 날은 마을 사람과 海女들이 어울려 紀念撮影까지 한다. 그 때에 같이 出稼했던 한 海女는 吾照리에 約婚者를 두고 갔지만 그곳 青年한테서 求婚을 받아 結婚하여 現在 자식 둘을 낳고 幸福하게 살고 있다.

現 56歲의 ‘한춘선海女’는 18歲, 19歲, 25歲, 세 차례에 걸쳐 對馬島에 出稼했었다. 동네 사람 15名쯤이 함께 出稼했었는데, 對馬島에서의 生活는 倉庫 같은 집에 밤에는 호롱불을 켜서 살았으며, 쌀을 구하기가 어려워 기름찌꺼기나 옥수수 배급을 받고 하루하루를 延命했었다. 마침 어린애를 데리고 出稼하여서 作業 나갈 때 집에서 놀게 하고 돌아와 보면 제멋대로 뒹굴다가 잠들어 있기도 했다.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밤새도록 미역을 한뼘 넓이로 하여 널어 말리는 作業을 하고 새벽이 되면 미역 採取

하러 부지런히 바다로 나섰다. 또 國內의 忠清道 地方에 出稼했을 때는 ‘뱃물질’을 하면서 1週 동안 바다에서만 生活을 하기도 했다. 어떤 날은 바다 가운데서 颱風을 만나 마실 물이 떨어지고 進退維谷에 빠져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한다.

現 56歲의 ‘강복숙海女’는 21~24歲의 4번에 걸쳐 對馬島에 出稼했었다. 시아버지가 對馬島의 바다를 사서 濟州島 海女를 募集해 갔다. 吾照里 海女와 甫木里 海女를 합하여 50名の 海女들이 배를 타고 城山浦 港口를 출발하자 海女들이 기쁨에 넘쳐 高聲放歌했을 때 시아버지가 “이런 사람들 日本에 데려가기 부끄럽다”고 호통하던 일이 어련히 떠오른다고 回想한다. 日本 對馬島에 가서 보니 日本 海女들은 ‘테왁’ 없이 뱃전에 매달려 作業을 하고 있고, 水鏡도 숨통이 달린 水鏡을 쓰고 있었다 한다. 그 때 ‘강복숙海女’는 年齡은 22歲였고 ‘족은눈’과 ‘남총망사리’를 갖고 出稼했다 한다.

IV. 器具와 收益

吾照里 海女들이 사용하는 器具 중에는 一部 변천하기도 하고 옛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다. <表14>는 現用 海女器具다. 大型單眼鏡을 ‘큰눈’이라 부르고 있으며 ‘큰눈’을 使用하는 海女中에는 쇠로 만든 것을 쓰기도 하며 고무로 된 ‘큰눈’을 쓰기도 한다.

<表14>

現用 海女服 및 海女器具

吾 照 里

器 具 名	大型單眼鏡 小型雙眼鏡		在來服 改良服		在來테왁 改良테왁		在來망사리 改良망사리	
人 員	23	0	6	17	2	21	0	23

1974年 7月 日 現在

吾照里에서 처음으로 ‘큰눈’을 쓴 海女는 現 69歲 ‘강순화老婆’가 25歲 때 동네 海女 3人이 細花里에 가서 맞춰다 쓴 것이 始初였다 한다. 그 당시 價格으로 1원 50전이었던 것이다. 小型雙眼鏡은 ‘족은눈’·‘깨눈’·‘엷쟁이눈’이라 부르고 있는데, ‘깨눈’은 始興里나 漢東里에서 맞춰다 썼

고, '엄쟁이눈'은 五日場에서 사다 썼다 한다. 지금은 여느 마을이나 마찬가지로 小型雙眼鏡을 쓰는 海女는 없고 어린아이들이 使用하고 있을 뿐이다.

現 71歲의 老婆는 16歲 때 '케눈'을 쓰기 시작하여 60歲 때까지 이것을 썼다고 한다. 海女服은 改良服을 착용하는 海女가 85名이 있으며, 그 나머지는 在來服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다. 改良服을 처음 착용한 海女는 海女會長이 먼저였고, 吾照里 海女間에는 착용하지 말자는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1973년부터 團體注文을 해서 착용하고 있다.

改良服을 착용함으로써 얻는 長點은 1回 潛水하면 6時間이란 長時間을 作業할 수 있다는 점, 물속에 오래 있어도 추위를 덜 느낀다는 점, 採取物을 많이 採取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그 반면 副作用이 있어 피부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現在 15名이나 되는 海女들이 뇌선이라는 鎮靜劑를 복용하고 있으며, 採取物이 급격히 없어져 가고 있다는 점과 改良服에 달아맨 鉛鐵의 무게로 허리병이 생기고 있다 한다. 改良服을 착용하지 않고 在來服을 착용하고 있는 海女들 중에는 改良服의 부작용이 두려워서 착용하지 않는 海女도 몇몇이 있다. 一部 海女들 사이에서는 改良服이 없어도 作業을 해 왔던 것을 想起한다면 勸獎할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애 못넣는 사람 海女服만 입고 장판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을 웃기면 애 넣을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지는 것이 在來服에 얹힌 말이다. 海女器具中에서 '죽테왁'을 사용하는 海女도 거의 사라지고, '나이롱테왁'을 全部 사용하고 있다. 옛날에는 '죽테왁'을 만들려면 우선 집에 박을 심고 그 박이 익으면 따다가 부엌 한 구석에 걸어 두었다가 박속에 든 씨를 빼어서 쓴다. 박씨를 뺄 때는 이 세상의 가장 귀중한 것을 만질 때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한번 만들면 20年을 쓸 수 있다는 '죽테왁'도 5年前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나이롱테왁'에 밀려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망사리'도 거의가 '나이롱망사리'를 사용하고 있다. 吾照里에서는 '망사리'를 '홍아리' · '망아리' · '홍사리' · '망사리' 등으로 부르고 있다. '나이롱망사리'가 나오기 전에는 신사라 · 남총 · 역새 따위로써 '망사리'를 만들어 썼었다. 들에 가서 역새를 베어다 말린 다음, 방망이로 두들겨서 알맹이를 빼고, 이것으로 꼬아 '망사리'를 만들어 썼다. '망사리'種類는 多樣하여 '헛물망사리' · '조락' · '미역망사리'가 있고, 作業하러 갈 때에 器具를 담은 바구니로는 '출구덕' · '질구덕'이 있다.

<表15>는 吾照里 海女の 月別 1日 平均所得이다. 收益이 가장 좋은

濟州島部落誌(Ⅲ)

<表15>

月別 1日平均所得

吾 照 里

月 別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1日平均所得 (원)	681	659	645	563	745	609	702	681	559	447	440	431

1974年 7月 日 現在

<表16>

水産物生産実績

吾 照 里

品 種 別	數 量 (kg)	金 額 (원)
소 라 · 고 동	14,000	4,745
미 역	50,000	1,500
천 초	3,000	120
툇	11,500	2,600
해 삼	100	340
성 계	1,000	650
멸 치	300,000	6,000
육 돔	15,000	2,250
비 식 용 해 조 류	200,000	400
계	594,600	18,605

1973年 12月 31日 現在

吾照里 漁村契 提供

때가 陰曆 5月로 나타난다. 12月에 가서 所得이 낮아지는 것은 날씨 탓으로 波浪이 심하여 採取物을 많이 採取 못하기 때문이다. <表16>은 吾照里 漁村契가 1973年 12月에 集計한 水産物 生産実績이다. 멸치·육돔을 除外한 나머지는 海女들이 採取物에서 나온 收益이다. 海女들이 버는 收益은 未婚女인 경우 婚需감 마련하는 데 쓰이고, 家庭이 있는 海女라면 집·밭 등의 財産을 늘리는 데 쓴다.